이투데이

ECONOMY TODAY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etoday.co.kr

제208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실탄 충분한데…'코끼리 사냥' 접은 버핏, 왜? 8

허창수 회장 "'낚시 스윙' 최호성처럼 도전하라" 10

코스피(22일 전주 대비) 2230.50(+34.41P)
코스닥 743.38(+4.72P)
환율(달러당 원화) 1125.2(-3.5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14%(+0.035%P)

스페셜e리포트

이젠 '新남방 시대'…3대 성공조건은

인도·아세안 10곳 코트라 무역관 설문

1 리스크 대비 충분한 초기 자금
2 현지 파트너사 손잡아야 안전
3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접근
화장품 등 소비재·핀테크 유망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인도·아세안 국가에 대한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은 무작정 달려가면 성공하는 '희망'의 땅일까.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예스다. 반면 사전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겐 '절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성공을 위한 요소로는 △돌발 리스크 대비한 투자금 준비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 세 가지가 꼽힌다. 투자 유망분야는 한류 바람을 탄 화장품과 식료품 등 소비재와 핀테크 등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4·5면

이는 이투데이가 18일부터 22일까지 아세안 10개국 중 코트라 무역관이 개설되지 않은 브루나이를 제외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곳 무역관과 인도 무역관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신남방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을 친 데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규제 변경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현지 기업과의 합자회사나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동 진출하는 게 유리하고 정부 관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절대 부족한 데다 유통·물류 인프라가 열악해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원자재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문제였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가 많지 않은 탓이다. 특히 현재 성장 중인 국가들이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자본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아 초기 투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느린 행정 처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력만 믿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실질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노동규제가 많고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 최소 3~4년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도의 진출 유망분야는 가전,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 식료품 등이 꼽혔다.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산업과 교통·환경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는 화장품, 식품 등의 생활소비재가 유망하다는 게 이들의 팁이다.

태국의 경우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등 '태국4.0 정책'의 타깃산업 분야와 화장품, 식품, 콘텐츠 관련 품목이, 필리핀은 농업, 관광, 콜센터와 같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가,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외식산업, 재생에너지 등이 각각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신동민 기자 lawsdm@·박병립 기자 riby@

인도 · 아세안 코트라 무역관이 본 투자의 재발견

-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인도** 진출 핵심
- 한국과 산업 · 경제 발전 한배 탄 **베트남**
- **미얀마**는 아세안의 마지막 미개척시장
- 본격적 성장 꾀하는 잠재력 큰 **캄보디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호랑이'
- **태국**은 아세안 내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한류 확산 본거지
- **필리핀**은 관광뿐 아니라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
- 낙천적인 사고방식과 이문화에 개방적인 **인도네시아**
- **라오스**는 10년 이상 장기투자해야 하는 잠재 우량주
- **싱가포르는** '작지만 강한 나라'

'폴더블폰·5G 대전' 막올랐다
글로벌기업 혁신기술 총출동

MOBILE WORLD CONGRESS
BARCELONA 25-28 FEB 2019

삼성, 스마트 5G 상용 기술력 과시
LG, V50·G8 씽큐 동시 공개
화웨이, 폴더블폰 '메이트X' 출시
샤오미, 더블 폴딩 방식 선보여

모바일 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25~28일)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 5G폰인 갤럭시S10 5G와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응하기 위해 LG전자, 화웨이, 샤오미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이 비밀 무기를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3·8면

갤럭시S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를 선보인 삼성전자는 MWC에서 자사 칩셋부터 스마트폰, 통신장비까지 통합적 5G 솔루션을 전시하며 5G 상용 기술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최초의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와 미국, 한국에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인 통신장비를 활용해 5G의 초저지연·초연결성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5G 스마트폰을 미국과 한국에 이르면 3월 말 출시한다.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EE, 프랑스 오렌지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올여름 유럽 시장에도 출시한다. 갤럭시 폴드도 처음으로 전시되며 중저가폰 갤럭시A50·갤럭시A30도 첫선을 보인다. 다양한 상용 5G 통신장비,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설계·운영 솔루션, 미래 5G 통신 서비스도 공개한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개막일보다 하루 앞선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CCIB에서 전략 스마트폰인 'V50 씽큐'와 'G8 씽큐'를 동시 공개했다. V50 씽큐 5G는 LG전자 첫 5G 스마트폰이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강력한 멀티미디어 성능을 갖췄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 업체들이 폴더블폰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LG전자는 '듀얼 디스플레이'를 무기로 내세웠다.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5G로 브랜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도 폴더블폰 경쟁에 가세한다. 화웨이는 5G를 지원하는 자사 폴더블폰 '메이트X'를 공개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인 데 반해 화웨이는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4월 26일 글로벌 출시하기로 했고 한국에서는 5G를 지원하는 폴더블폰을 5월 중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화웨이 폴더블폰 출시일에 따라 세계 최초 폴더블폰 타이틀의 주인공이 정해진다.

언팩 행사를 준비 중인 샤오미는 양쪽 끝을 잡고 바깥쪽으로 접는 '더블 폴딩' 방식의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범근 기자 nova@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Mobile World Congress) 2019'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1조2500억〉

産銀 "현대重 주주배정 유상증자 불참"

2100억 신주 살 권리 포기
2兆 규모 3자 배정 유증만 참여

KDB산업은행이 1조2500억 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산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의 물적분할 이후 진행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신주를 배정받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9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및 자금투입 계획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연이어 실시한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조선합작법인을 물적분할한 뒤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증을 한다. 2조 원 규모다. 산은이 대우조선에 대한 지분을 현물출자해 조선합작법인(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액수와 같다.

두 번째 유증이 바로 주주배정 유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선합작법인은 물적분할과 제3자 배정 유증을 마친 뒤 10영업일 안에 주주배정 유증을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규모는 1조2500억 원이다. 주주배정 유증이란 기존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구주주들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증을 할 때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게 20만 원의 신주를 살 권리를 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산은에도 약 2100억 원 규모의 조선합작법인의 신주를 살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생긴다. 하지만 산은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유증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업계는 산은의 이 같은 결정을 대우조선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적 자금 회수로 시끄러운 상황에 대우조선에 들어갈 유증에 참여하기는 부담일 것"이라면서 "이후 지분율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실탄 남아돈다" 롯데 계열사·넥슨 인수전 참여

'M&A 전장' 누비는 MBK

김병주 회장〈사진〉이 이끄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최근 대형 인수합병(M&A)마다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여하지 않는 '빅딜'을 세는 게 빠를 정도다. 풍부한 '실탄'이 가장 큰 무기라는 평가인데, 사모펀드의 힘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계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인수전으로 꼽히는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와 넥슨 인수전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넥슨 M&A는 인수가격이 10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거래다. 롯데 금융 3사의 예상 매각 가격도 약 3조 원이다. 막대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보다. 롯데 금융 인수전에서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쇼트리스트에 포함됐다. 매각이 보류된 롯데캐피탈의 예비입찰에도 응해 유력한 인수 후보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롯데카드 인수전에서는 한화그룹과의 컨소시엄 가능성도 제기됐다.

21일 예비입찰을 마친 넥슨 인수전에서는 넷마블과 손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이 전략적투자자(SI)로, MBK파트너스는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MBK파트너스에서 댈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의 보유 자금이 많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넷마블의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6500억 원에 불과하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사모펀드이지만 대다수 펀드는 해외 자금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해외 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북아 지역을 활동 무대로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의 아시아태평양 사업 인수전에도 뛰어들어 인수에 성공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터키 식품업체 일디즈홀딩이 매각을 추진하는 고디바 아태지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사업군을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고 전했다. 인수 가격은 10억 달러 정도다.

FT는 MBK파트너스가 약 12곳의 경쟁자를 제치고 인수에 성공했다면서 "MBK는 아시아 최대 바이아웃 펀드이며 동북아시아의 여러 딜에서 주요 경쟁자였다"고 언급했다. 2005년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MBK파트너스의 운용자산은 약 150억 달러(약 16조 원)이다. 2016년 41억 달러 규모의 4호 펀드 조성을 완료하는 등 자본력이 탄탄하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도 꼽힌다.

MBK파트너스 최근 주요 M&A

인수/매각 기업	예상 가격	진행상황
넥슨	10조 원	예비입찰 완료
롯데그룹 금융 3사	3조 원	카드·손보 쇼트리스트 선정/캐피탈 매각 보류
고디바 아태 사업	10억 달러	인수 확정
코웨이	1조6850억 원	매각 완료
오렌지라이프(ING생명)	2조3000억 원	매각 완료

운용자산 150억 달러 '두둑'
41억 달러 규모 4호 펀드 조성

고디바 아태 사업 인수 성공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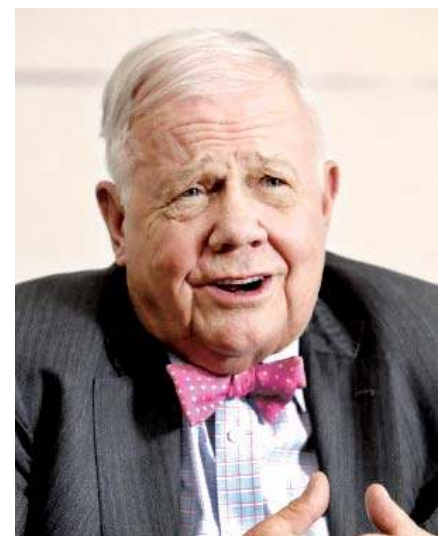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오렌지라이프(ING생명)와 코웨이를 매각하며 국내에서 부진했던 '엑시트'에도 성공했다. 회수한 이익만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금 회수에 성공하면서 향후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확률도 더 높였다.

최근에는 회수가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대해 리츠 상장으로 자산 유동화를 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전국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홈플러스 리츠'를 상장할 예정이다. 홈플러스홀딩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보유한 51개 매장을 홈플러스 리츠에 매각해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다. 홈플러스에 7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MBK가 현금 회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가면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당장의 배당에 더 큰 관심을 가지다 보니 기업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기업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日주식·엔화 팔아치운 '짐 로저스'
"한반도에 새로운 투자 기회 있다"

"북한 문호 개방·풍부한 자원 등 10~20년간 투자 매력 증가할 것"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니혼게이자이신문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76)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회장은 24일(현지시간)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7~8년 동안 보유해온 일본 주식과 엔화를 작년 가을에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저스는 일본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로 인구 감소와 통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일본이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돈을 풀어 경기를 지탱하는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또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반도에 대해선 "투자 매력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앞으로 10~20년 동안 한반도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신도 한반도에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회장은 "주한 미군 기지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이지만 머잖아 한국과 통합해 북한의 문호가 열릴 것"이라며 "북한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데다 저임금으로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비관적이었다. 우선, 갈등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중국은 미국에서 농작물과 에너지 등 수입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은 침체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저스 회장은 그 원인으로 "중국에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파탄이 예상치 못한 불씨가 될 수 있다"며 "5~10년간 지속된 중국의 부채 팽창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채무 삭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탓에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로저스 회장은 그렇게 분석한 배경으로 "위기는 조용히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아이슬란드의 금융 위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순간에 경제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미 라트비아와 아르헨티나, 터키에서 위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먼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이 부채를 너무 부풀려 채무가 수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준"이라며 "다음 경제 위기는 리먼 쇼크를 웃도는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저스 회장은 "세계 경제가 딜레마에 처했다"며 "만일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지출을 줄이면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김영정 기자 0jung2@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깨끗한 에너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VR·AI 결합한 5G… 이통3사 '초연결' 주도권 다툼

내달 첫 상용화 앞두고 MWC서 경쟁
KT, 부산-스페인 스카이십으로 연결
SKT 'AI 머신비전' 미래 생활상 제시
LGU+ '스포츠+VR'로 경험 극대화

KT 직원과 모델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19 KT 전시관에서 선보일 5G 스카이십, 5G 리모트 콕핏 등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SK텔레콤은 공간 한계를 극복하는 5G VR, 반도체를 검수하는 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활상을 선보이고 있다(가운데). LG유플러스 임직원이 U+5G를 알리고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내달 세계 첫 상용화를 앞세워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선전 포고다.

이통 3사는 25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9에서 대규모 전시 부스를 꾸리고 다양한 5G 서비스를 전시한다. 특히 각 사마다 체험존을 꾸며 5G가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강조한다.

◇KT, 6개 존에서 5G네트워크 적용한 서비스 시연 = KT는 '5G 현실로 다가오다'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다.

전시관은 5G 스카이십, 5G 리모트 콕핏, 5G 팩토리, 5G 플레이그라운드, 5G 360도 비디오, 5G AI 호텔 로봇 등 총 6개의 존으로 구성했다. 전시 부스에서는 부산 해운대 상공을 비행하는 '5G 스카이십'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KT의 5G 네트워크와 국제 전용회선을 통해 바르셀로나 MWC 행사장 내 KT 부스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5G 스카이십이 촬영한 영상과 비행 정보는 부산에 구축된 KT의 3.5GHz 5G 네트워크와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육상과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약 2만 ㎞의 국제 회선을 통해 바르셀로나로 실시간 전달된다.

5G 스카이십 존 내에 5G 스카이십 조종석을 마련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직접 바르셀로나에서 부산에 위치한 스카이십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해볼 수 있다.

글로벌 5G 협력도 강화한다. KT는 NTT도코모, AT&T, 차이나텔레콤, 도이치텔레콤, 버라이즌, 후지쓰, 삼성전자, 솔리드 등과 함께 개방형 5G 네트워크 표준인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글로벌 5G 협력을 강화한다.

◇SKT, 세계 첫 5G 상용 솔루션인 '5G-AI 머신비전' 공개 = SK텔레콤은 세계 첫 5G 사용 솔루션인 '5G-AI 머신비전'을 공개한다. 또 VR로 공간 한계를 극복하고, AI로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첨단 기술이 펼칠 미래 생활상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의 핵심인 제3홀 중심부에 올해로 10년째 단독 전시관을 마련한다. 이곳은 △5G 커넥티드 스페이스 △5G 커넥티드 팩토리 △5G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5G 커넥티드 비히클 등 총 4개 테마로 공간을 구성했다.

SK텔레콤은 세계 1호 5G 상용 솔루션인 '5G-AI머신비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5G AI 머신비전은 공장 생산라인에 고화질 카메라, 5G 네트워크, AI를 접목해 제품의 결함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컨베이어벨트를 지나는 부품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면 고성능 AI가 사진을 순식간에 판독해 품질을 검사한다. 근로자는 AI와 협업을 통해 1인당 생산성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

◇LG U+, 5G 콘텐츠 '야구·골프·공연' 글로벌 무대 첫 선 = LG유플러스는 기존 프로야구·골프 및 공연 서비스에 5G를 접목해 보다 고도화한 서비스를 글로벌 무대에 처음 선보인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내세우고 있는 '5G로 변화된 일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LG유플러스는 'LG와 함께 시작하는 5G'를 주제로 제3홀 내 전시관을 마련하고 5G 콘텐츠 서비스로 진화된 프로야구·골프·아이돌 Live 기능을 비롯해 AR·VR, 홀로그램 스피커 서비스를 선보인다.

U+프로야구, 골프 및 U+아이돌 Live는 고화질로 끊김 없이 자유롭게 골라보고 돌려보는 기능을 더해 세계무대에서 최초 공개한다. 5G 기술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돌려보는 기능도 가능해졌다. △홈 타석의 모든 순간과 각도를 포착하는 '홈 밀착영상(4D Live)' △다각도로 골프 스윙 관찰이 가능한 '스윙 밀착영상(4D Replay)' △인기 골프선수 코스별 경기 상황을 입체 그래픽으로 한 눈에 보는 '코스 입체 중계(AR Tour Live)' 기능을 공개한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범근 기자 nova@

LG V50 ThinQ 5G상세 제원

- 크기 159.2x 76.1 x 8.3mm
- 무게 183g
- 색상 아스트로 블랙
- 디스플레이 6.4" QHD+19.5:9 화면비풀비전(FullVision) 디스플레이(3120 x 1440/564ppi)
- 카메라 전면 800 만 화소 표준 f1.9 1.12 ㎛ 80° 500 만 화소 광각 f2.2 1.0 ㎛ 90°
- 카메라 후면 1,200 만 화소 표준 f1.5 1.4 ㎛ 78° 1,600 만 화소 광각 f1.9 1.0 ㎛ 107° 1,200 만 화소 망원 f2.4 1.0 ㎛ 45°
- 배터리 일체형 4,000mAh
- 메모리 RAM 6GB/ROM:128GB

LG "4G-5G 투트랙으로 고객 만족"

V50·G8 동시 출격

LG전자가 V50과 G8 시리즈를 동시에 출시하면서 5G 시대 재도약을 노린다.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인 V시리즈와 G시리즈를 동시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각각 G 시리즈와 V 시리즈를 출시하던 기존과 달리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최신 기능과 부품을 탑재한 제품을 적시에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V50 씽큐 5G'는 4G 대비 최대 20배 빠른 5G 속도로 대용량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다. 5G 속도를 원하는 고객이 기대하는 부분이 게임, 영화 등 멀티미디어 사용이라는 점에 주목해 콘텐츠를 즐길 때만 큰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 'LG 듀얼 스크린'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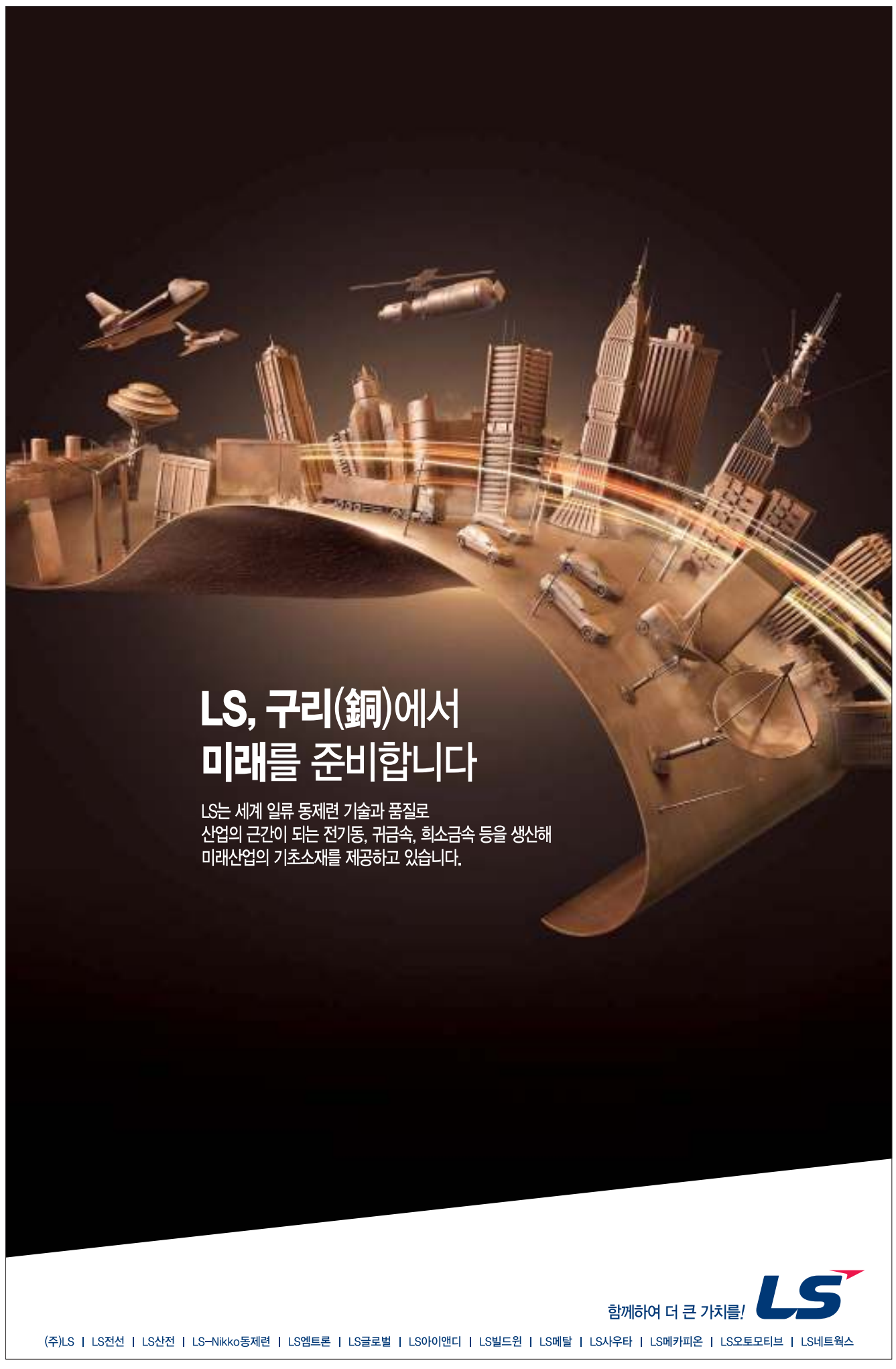
듀얼 스크린은 스마트폰 화면을 덮는 플립(Flip) 형태로 일반 스마트폰 커버처럼 끼우기만 하면 스마트폰과 연동된다. 이를 펼치면 6.2인치 'LG 듀얼 스크린' 화면은 왼쪽에, V50 씽큐 5G 화면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듀얼 스크린을 V50 씽큐 5G와 연결하면 5G로 서비스되는 공연장의 무대 영상을 LG 듀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V50 씽큐 5G 화면에는 공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각도의 작은 영상들이 수신된다. 스마트폰 화면의 작은 영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LG 듀얼 스크린으로 크게 볼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의 콘텐츠에 따라 듀얼 스크린과 V50 씽큐 5G의 화면을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V50 씽큐 5G는 6.4인치 대화면을 장착해 영상이나 게임을 즐길 때 몰입감이 뛰어나다. LG만의 고품격 사운드는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도 스테레오를 들을 수 있게 업그레이드됐다. 또 고급 이어폰이나 전용 콘텐츠 없이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 DTS:X 기술을 외부 스피커로도 구현했으며 세계 최초로 전·후면 카메라 아웃포커스 동영상 기능을 적용했다.

LG전자는 이날 4G 시장에서 다변화되는 고객 요구에 맞춰 가장 많이 쓰는 기능에 새로움을 더한 'G8 씽큐'도 함께 공개했다. G8 씽큐는 'Z 카메라'를 전면에 탑재하고 손짓만으로 앱을 구동하는 '에어 모션'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누를 때마다 느끼는 기존의 '손맛'과는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정맥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비추기만 하면 카메라가 손바닥 안에 위치한 정맥의 위치, 모양, 굵기 등을 인식해 사용자를 식별한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범근 기자 nova@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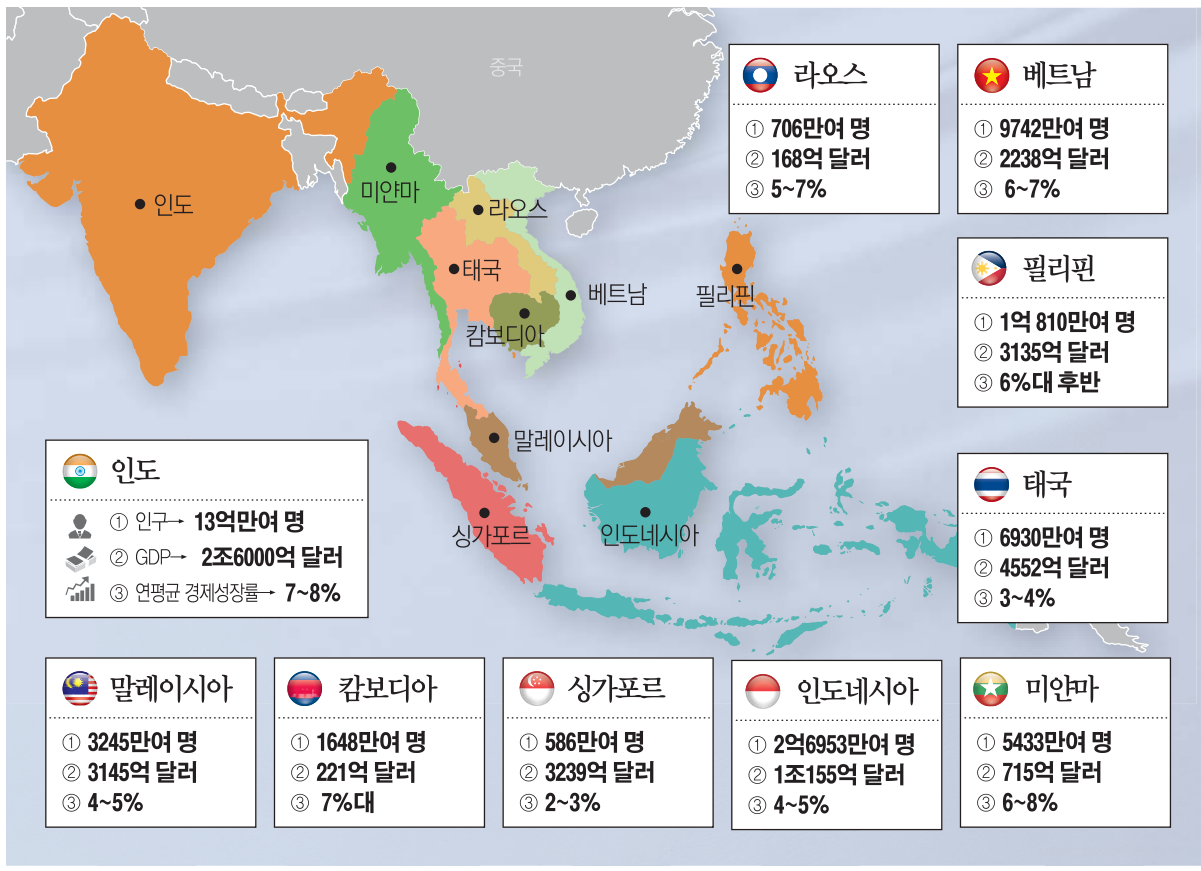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10곳 코트라 무역관 말하는 신남방 진출 성공조건은

“인도의 스타트업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서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박한수 서남아시아지역본부장 겸 뉴델리무역관장은 22일 기자와 만나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인도를 주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 스타트업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이 13개로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네 번째”라며 “이번 한·인도 정상회의에서 양국 스타트업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해 규제가 많지 않은 인도 스타트업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투데이는 아세안 9개 무역관과 인도 무역관 등 코트라 무역관 10곳과 함께 국내 기업 진출 시 성공조건과 걸림돌(규제사항)을 살펴봤다.



아세안·인도 경제현황 및 투자 유의사항

투자 유망분야	
인도	가전,휴대폰, 자동차, 화장품, 식료품, 철강, 화학, 운송기계
베트남	자동차·부품, 핀테크, 교통·전력·환경 인프라 건설
미얀마	도로, 에너지, 의료, 식품·미용 프랜차이즈
캄보디아	생활소비재, 유통·전자상거래, 건축·건설자재
말레이시아	석유·가스, 외식산업, 재생에너지,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
태국	화장품, 식품, 콘텐츠
필리핀	중산층 대상 소비재, 인프라·방산·무상원조 등 경협 분야
인도네시아	화장품, 식품 등 생활소비재
라오스	내륙운송(여객 및 물류), 보세창고, 핀테크
싱가포르	핀테크, 바이오메디컬, 로봇 등 정부 육성 산업군

투자 유의점	
인도	지방정부 규정과 관례 습득해야
베트남	합작투자와 원부자재 조달 등 철저히 준비
미얀마	진출 초기비용 크며 수익 창출 어려운 시장
캄보디아	불필요한 행정절차
말레이시아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 우대 정책 잘 살펴야
태국	통관·인증 까다롭고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따져봐야
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 잘 살펴야
인도네시아	외국 기업 진입장벽 높고 더딘 행정
라오스	물류 환경 좋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싱가포르	사업을 지속 운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임대료, 체재비) 높음

※출처 : 코트라 아세안·인도 무역관(브루나이 제외)

베트남 현지 기업과 합작은 필수
미얀마 관료·기업 네트워크 중요
캄보디아 노동집약 제조업 매력적
말레이 말레이계 우대 정책 활용
태국 왕실·고위층 사칭 주의해야
필리핀 한류 활용 소비재 등 유리
인니 외국기업 통관절차 등 깐깐
라오스 원자재 조달 가능 분야 공략
싱가포르 소비성향·유통구조 파악을

◇**인도**=국내 기업 진출 시 반드시 현지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인도는 지방분권이 이뤄진 국가여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 문제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현지 공무원의 재량 폭이 넓어 현지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 법인이나 공장 허가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베트남**= 지난해 경제성장률 7.08%를 달성한 베트남은 올해에도 6%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트남은 까다로운 진입 기준으로 사실상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해야 해서 현지 기업과의 유대와 관계 설정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

합작투자 시 대부분 실질적 투자비용인 현금과 현물투자는 외국 투자자가, 공장 및 토지는 베트남 투자자가 내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외국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아울러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투자 진출 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수입 허가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공장 임대료가 비싸고 200만~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인프라 개선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 과세당국이 최근 로열티와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 용역 거래에 과세권을 확대하고 있어 종합 세무관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미얀마**= 외국인 투자로 연 6~8%의 성장률을 보이는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개척 국가다. 미얀마는 행정 관행이 후진적인 데다 금융시장이 낙후돼 현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시장 정보 절대 부족, 부동산 소유 금지, 외국 기업 차별 등으로 진출 초기 비용이 상당이 소요되고 수익은 창출하기 어려워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관료와 현지 유력 기업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며 법률·제도 변경이 잦고 통관 및 허가 등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캄보디아**= 최근 5년 이상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보인 캄보디아는 태국·베트남·라오스 3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수출형 노동집약 제조업 기업에 매력이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 시장에 대한 공개적 정보나 유통·물류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많아 국내 기업 진출 시 투자 비용이 증가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진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진입 시 현지의 파트너사와의 합작투자나 현지 기업 지분 투자 혹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잦은 세무조사와 급속한 실질 임금 상승, 잦은 노동규제 변화가 한국 투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소비재 시장의 테스트 베드다.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을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잘 살펴보고 국영기업 발주나 공공공사 수주 시 말레이계 현지 업체를 독점 에이전트로 선정하거나 말레이계 지분이 포함된 합작 투자회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또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고려해 매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태국**= 올해 3.9%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 시장이다. 현재 태국 정부가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10대 미래 산업 육성 및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을 하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이 분야가 유리하다. 다만 프로젝트 진출 시에는 태국 왕실이나 고위층을 사칭한 허위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태국은 3개 업종군으로 나눠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데다 현지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외국인 1명당 자본금 200만 밧(6800만 원)과 태국인 4명 고용 의무 규정이 있고 체류비자 및 노동허가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필리핀**= 최근 5년간 6% 후반대 성장률을 보인 필리핀은 세계 8대 광물 부국으로 꼽히는 나라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 진출 강화, 한류 활용 소비재 진출, 인프라·방산·무상원조 등 경협 이슈 등을 적극 활용하면 필리핀 진출이 용이하다. 필리핀은 안보, 언론, 교육, 소매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는 100% 직접투자가 허용되지만 주요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고 있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으로 최근 5년간 5% 내외의 경제성장으로 소비재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관련 규제사항 및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사전에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투자 진출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약 8억 원)로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인도네시아는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인증 발급 등이 걸림돌이다.

◇**라오스**= 매년 5~7%대의 성장을 이어가는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물류 환경이 미흡하다.

보수적이고 느린 성향의 라오스에 안착하려면 인내와 초기 자본력이 필요하다. 물류 환경이 좋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라오스에서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분야를 찾거나 지정학적 이점, 국가개발전략 실행 등을 고려한 투자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올해 2.7% 성장률이 전망되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가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다.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은 시장규모, 소비 성향 및 유통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한 현지 파트너사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또 법인 설립이 쉬우며 투자환경이 우수하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임대료, 체재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업종별 라이선스가 필요해 전문 법률기관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동민 기자 lawsdm@

‘포스트 차이나’ 뜨는 베트남, 韓 경제협력 파트너로 급부상

연평균 경제성장률 6%대… 한국 교역대상 4위로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Post-China)’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이 거대 시장인 중국을 대신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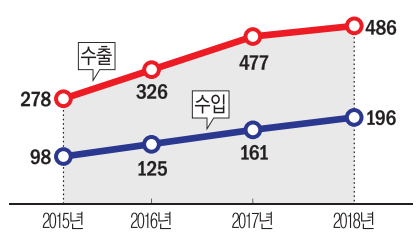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실질GDP)은 2015년(6.7%)을 시작으로 매년 6%대를 넘기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중국·미국 중심의 한국 경제지형을 아세안·인도로 확대)의 핵심 파트너국으로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액(수출+수입)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682억 달러였다. 2015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래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48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1622억 달러), 미국(727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투자 1위 국가다.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8억1000만 달러로 전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대비 24.5% 증가했다. 카메라 모듈·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부품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우리 기업의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하반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64.0%는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이 수출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라고 응답했다. 투자 진출 역시 베트남(60.4%)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베트남이 한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이를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고, 필요 조치도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남방 정책의 4대 중점 협력분야인 교통,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세부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베트남은 가파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연평균 6~7%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를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성장속도 빠른 新시장, 준비 없이 덤비면 백전백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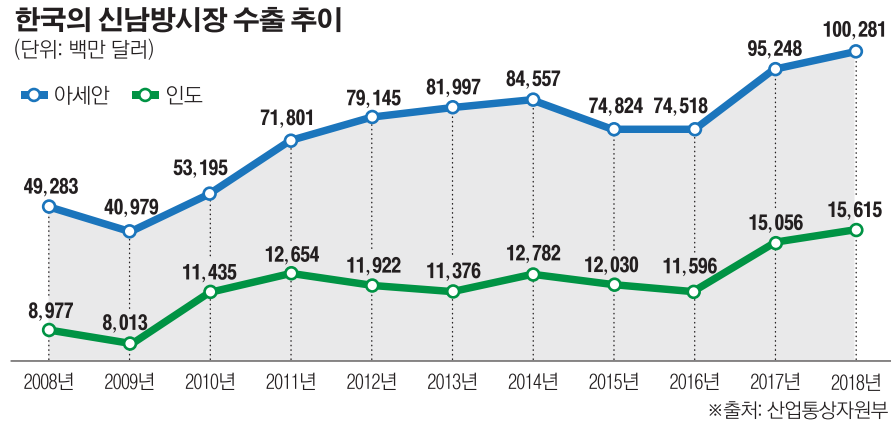
신남방 시장 안착하려면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역 정통한 전문가 육성 절실 부족한 부분, 정부서 지원해야

신남방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기존 시장을 대체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로 덤볐다간 신남방 시장이 사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신남방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기존엔 미국, 중국 등 슈퍼파워 사이에서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신흥 지역으로 관계망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한국이 중견 국가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남방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철 부산외대 인도학과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 교수는 "한국이 그간 추구해온 통상 전략은 이제 글로벌 경제침체와 미·중 분쟁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 소수 국가에만 의존했던 통상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인도, 동남아시아는 우리 생각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신남방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인도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 초기 단계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 들어가면 진입장벽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돕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이 교수와 이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현지 진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남방 시장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경계했다. 이 교수는 '네트워크 리스크'를 꼽았다.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현지 파트너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남방 시장에 덤볐다가는 '백전백패(百戰百敗)'라는 것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 교수는 "신남방 시장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시장이 아니다. 준비 없이 불쑥 진출했다가는 무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같은 경우 이미 '오버캐파(over capacity·과잉 설비)' 상태다. 기업이 더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며 "현지 진출에 앞서 시장에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대외 충격에 취약한 신남방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지역은 경제 규모가 작고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발주가 적어져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지면 난감한 일 아니겠냐"며 대내적 리스크로 법적·제도적 미비를 꼽았다. 그는 "제도 정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남방 시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교수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면 비즈니스 포럼, 미팅 등 (한국 기업인과 현지 관계자가) 서로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며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산업부가 최근 이런 행사를 자주 마련하긴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정확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시장에 대한 얇고 넓은 지식을 갖춘 제네럴리스트는 한국에도 많지만 현지 사업에 필요한 세부 분야를 깊이 아는 스페셜리스트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숲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충분하다. 이제는 나무를 관리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사업장과 현지 사업장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현지에서 못 만드는 부품은 보내주고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그곳에서 만들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지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국가 차원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인도 진출 때 유념할 '3가지'

①주마다 달라… 일반화는 금물
②보고서 믿지 말고 눈으로 확인
③서두르면 낭패… 대안 준비를

박한수 코트라 서남아 지역본부장

인도가 뜨고 있다. 인도는 브릭스 국가 중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인도는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GDP 기준 세계 5위 국가가 되었다. 인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고, 지난주 인도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로 매년 2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인도를 찾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 침체로 돌파구가 필요하다. 답은 해외 시장에 있다. 특히, 성장 한계 산업의 경우 인도로 진출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이라도 인도에 진출하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한국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면 고급 제품으로 팔릴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해 제품을 만들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인도는 중국과 다르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인도는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1990년대 진출한 우리 대기업부터 최근 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들 모두 인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일본 기업의 사례도 분석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최소한 3가지 사항은 유념해야 한다.

첫째, 일반화는 금물이다. "인도 시장은 이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다. 인도는 29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주마다 상이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주별로 언어와 종교도 다르다. 인도에 진출할 때 어느 지역이 자기 사업 스타일과 맞는지부터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연관 사업이라면 남부 첸나이와 중서부 푸네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는 하이데라바드, 전기,전자의 경우 북부 노이다가 좋다. 이 또한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보고서만 믿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 준 보고서에 많이 의존한다. 물론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보고서다. 인도에 1~2년 살면서 충분히 현지 경험을 쌓은 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만 믿고 진출하여 실패한 사례가 대우자동차다. 인도 소비자 반응조사를 그대로 믿고 생산, 판매해 보았지만 보고서같이 팔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인도는 날씨가 덥고 사회 인프라도 열악하다. 게다가 행정도 아주 느리다. 우리처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미리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플랜 A, 플랜 B 아니 플랜 C까지 만들어 두고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B도 안 될 경우 플랜 C로 해야 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인도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1990년대 삼성전자와 LG 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크게 성공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기업보다 여건이 불리하다.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금통위, 2월 금리 동결 전망"… 2명은 "하반기 인상"

채권 전문가 10명 조사

"경제지표 다소 부진하지만 정책적 변화 줄 이벤트 없어"

주택값 하락 여부도 관심사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하지만 당장 정책적 변화를 줄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내 한 번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도 주요 고려 요인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 하반기쯤 한 번 정도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24일 이투데이가 채권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모멘텀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통화당국 차원에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경기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1월 금통위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하향했지만 통화당국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액션을 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금융안정과 물가 및 경기안정이 충돌하며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생각보다는 매파적(통화긴축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 기대는 완화적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대보다는 매파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주택 상황에 대한 판단이 관심거리다. 김명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는 1월에 경기가 안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주택과 가계부채도 우려했다. 이번 금통위의 관심은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는지, 여전히 (인상) 깜빡이(신호)를 켜고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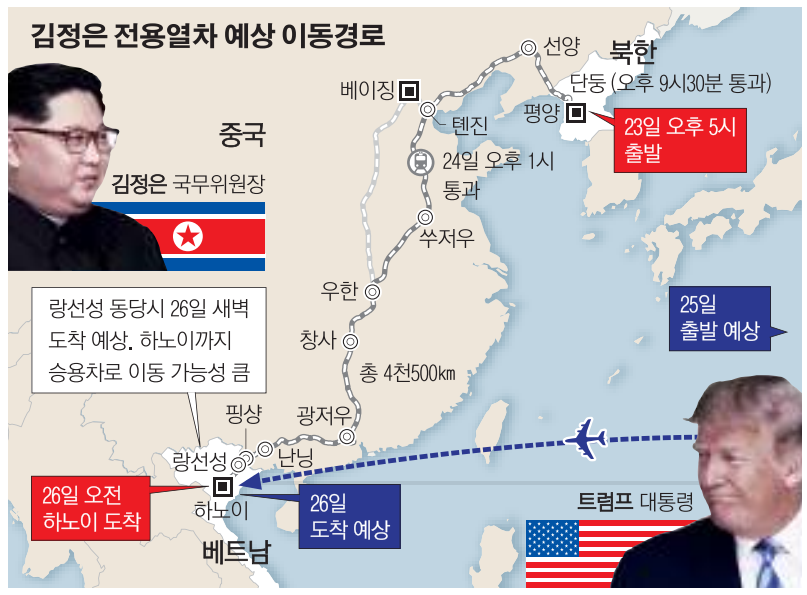
전문가 2명은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하반기쯤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3분기(7~8월) 시장이 안정화하면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봤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에 게재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에 타기 전 인민군 사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김일성 따라하기'… 열차로 4500㎞ 하노이行

편리한 '이동식 집무실' 선택

中·베트남 경제시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오후 열차편에 올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각선 '김일성 따라하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열차로 갈지, 중국 지역에서 항공편으로 갈아탈지는 확실치 않지만 열차 완주 가능성에 무게가 쏠려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전용열차로 입성할 경우 평양서 하노이까지 4500㎞라는 먼 길을 60시간 이상 이동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열차 행군' 선택은 우선 '이동식 집무실'이나 다름없는 전용열차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장갑차를 뛰어넘는 완벽한 안전성에다 최첨단 통신시설과 침실, 집무실, 연회실, 회의실, 식당, 경호요원 탑승 칸까지 모든 시설을 갖춘 집무실이다.

김 위원장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 중국 항공기 이용에 익숙지 않았거나 많은 인원과 물자를 여러 대의 항공편으로 수송하는 것에 열차보다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또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김 위원장이 베이징과 하노이 같은 중국과 베트남의 수도와 발전된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지방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려는 속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이나 베트남 인근에서 잠시 열차를 멈추고 직접 둘러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하늬 기자 honey@

홍남기 "저소득층 임금 보전, '소주성' 속도 내 분배 개선"

소주성 구체적 대안 제시

4월까지 주세 종량세 전환

증권 거래세 폐지 아닌 인하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임금보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 분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주세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증권 거래세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내게 돼 소득분배지표는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안으로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임금 확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보전 △저소득층의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보강을 통한 소득 능력 보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빈부 격차에 대해 "송구하다"며 "분배 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과 아동수당 확대 등 저소득층과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세와 관련해 "맥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고,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임을 못 박았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인하 폭과 그 시기는 미정이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대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2월 국회 '패싱'… 3월 국회도 '험난'

여야, 손혜원 국조 등 힘겨루기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3월 국회 개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곧바로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여야는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17일 문을 닫았다. 각종 민생 법안은 쌓여간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장제원·이장우·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결국 3월 국회를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각 당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당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조현정 기자 jhj@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정부, 개편안 27일 발표… 어떤 결론 나도 노사 갈등 '불씨'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27일 오후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초안에 들어간 '기업 지급능력' 항목이 제외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을 공개한 후 지난달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견으로 14일과 20일 두 차례나 개편안 발표를 미뤘다.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엔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과 결정위원회 인원 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각각 2가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지급능력' 조항이 최대 관심사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지급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결정기준에 반영할 항목들을 어떤 통계들로 볼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지,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넘겨받을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2000억 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공론화하나

한국전력이 지난해 2000억 원이 넘은 영업손실을 냄에 따라 한전의 실적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4조9532억 원)보다 5조1612억 원 줄어든 -2080억 원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3조6000억 원),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4조 원) 등으로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한전은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합치니까 더 끌린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노후 질병, 미리 대비하세요

삼성생명 종합간병보험 (무배당, 무해지환급형)
행복한 동행

간병이 필요한 중증치매나, 중증장기요양을 위한 !
[치매/장기요양 中 최초 1회 한하여 지급]

중증간병진단금은 물론 중증간병연금까지 !

無 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도 실속있게 !

* LTC : Long Term Care, 장기요양상태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제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진단보험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중증간병연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0240호(2019.01.22)

삼성생명 SAMSUNG

스페인으로 링 옮긴 美 vs 中 '화웨이 공방'

中 "보이콧 소용없다" 勢 과시… 美, 대규모 대표단 파견 '反화웨이' 이탈 단속

MOBILE WORLD CONGRESS BARCELONA 25-28 FEB 2019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날 선 공방전이 25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로 무대를 옮길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WC 참석을 위해 미국의 대규모 대표단이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방문은 수개월 간 이어진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에 참석해 다른 나라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 만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와 다른 임무를 띠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해 왔다. 중국이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한 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신을 방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이처럼 유럽 국가 설득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유럽이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 출시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유럽 순방 도중 "만약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된다면 그들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화웨이를 핵심 인프라에 사용하는 유럽 동맹국들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유럽 설득 작업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핵심 우방들이 미국 주도의 반(反)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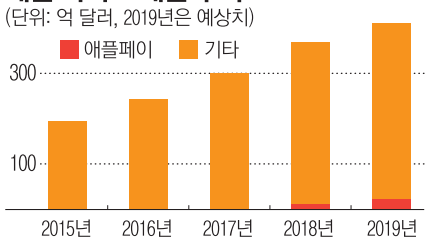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17일 "영국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국장 출신인 로버트 해니건은 "NCSC가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활용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5G 네트워크에 중국 기술이 들어온다고 해서 위협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독일 정부도 2주 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한 결과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통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화웨이의 5G 통신망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이 화웨이를 배제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화웨이의 사업 참여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공세에 화웨이의 대응 역시 강경하다. 화웨이는 이번 MWC 행사장에 가장 큰 부스를 설치하고, 거대한 전시장 외벽을 자사의 로고로 덮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로 회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화웨이 마케팅 판매 책임자 펜 송은 "화웨이 제품의 성능은 타사보다 훨씬 우수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런정페이 역시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를 설득해도 우리를 부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애플 서비스 매출 추이
(단위: 억 달러, 2019년은 예상치)



애플, 골드만삭스와 신용카드 출시한다

애플이 월가의 대표 은행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올해 후반께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아이폰 의존도를 줄이고 새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추려는 애플의 노력의 일환이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수주 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에 착수하고 올해 후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애플은 자체 디지털 월렛 앱인 '애플페이'에 새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핵심제품 아이폰에 새 기능을 덧붙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새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애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아이폰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애플은 구독료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에 애쓰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애플뮤직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 모바일 결제는 물론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연계해 자체 TV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다. 애플은 내년까지 서비스 매출을 500억 달러(약 56조2950억 원)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애플이 자체 신용카드를 발행하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그동안 부진했던 애플페이에도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새 애플페이 카드는 비자에 이어 미국 2위 카드결제업체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사용한다. 사용자들에게 대부분 제품 구매액, 특히 애플 기기와 서비스에 대해 약 2%에 달하는 캐시백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들이 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다음 달 말 뉴스와 동영상 부문에서 새 정액제 서비스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아이폰 판매에 의존하는 현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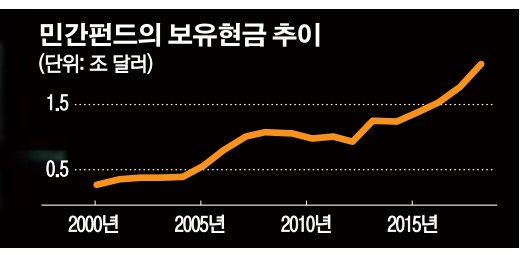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2016년 인터넷 은행 '마커스'를 출범하면서 소매금융 사업에 진출했다. 골드만삭스는 충성도가 높고 기술에 열광하는 젊은 애플 팬들이 마커스 고객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김정은 티셔츠 사세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서 한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북미 정상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팔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참석차 이미 북한을 떠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로이터연합뉴스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

실탄 충분한데… '코끼리 사냥' 접은 버핏 왜?

현금 보유액 사상 최대지만
자금 20배 많은 사모펀드
눈독 들인 기업들 가로채기



'가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3년째 '코끼리(대규모 기업 인수·합병)' 사냥에 나서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버핏은 2016년 320억 달러(약 36조 원)에 우주항공용 금속부품 제조업체인 프레시전 캐스트 파츠를 인수한 이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작년 9월 30일 시점에 1036억 달러로 5개 분기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프레시전 캐스트 파츠를 인수할 당시 현금 보유액이 7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수중에 어머어마한 현금을 쥐고도 버핏이 새로운 코끼리 사냥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고민이 있어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핏이 새로운 사냥감에 눈독을 들일 때마다 사모펀드 등의 펀드들이 경쟁적으로 달라붙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킨에 따르면 민간 펀드들의 투자 여유 자금은 사상 최대인 2조 1000억 달러로 10년 전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보다 20배 이상 많은 규모다.

스미드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빌 스미드 최고경영자(CEO)는 "버크셔가 인수 대상을 찾은들 사모펀드들이 버크셔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달려들어 인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버핏 역시 작년 연례 주주서한에서 "매력적인 인수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버크셔가 2018년 4분기(10~12월)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투자 여력이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버크셔는 23일 작년 4분기에 253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산하에 둔 식품 대기업 크래프트하인즈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데다 4분기 주가 하락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기업들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크셔는 1730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227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

크래프트하인즈의 부진은 버핏의 투자 성패를 평가하는데 상징적인 것이다. 버핏은 2013년 브라질 사모펀드 3G캐피털과 손잡고 230억 달러에 하인즈를 인수했다. 2015년에는 경쟁사인 크래프트와 합병시켜 크래프트하인즈로 재탄생시켰다. 이후 3G 캐피털 주도로 비용 절감을 추진했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이번 큰 손실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M&A에 대한 버핏의 의욕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버핏은 23일 작년 4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한 '연례 주주서한'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현금 사용처에 대해 "버크셔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레고 비켜" '펑코' 돌풍

캐릭터 피규어로 美 시장 사로잡아

미국 피규어 업체 '펑코(Funko)'가 해즈브로·마텔·레고 등 거대 장난감 업체를 제치고 미국 장난감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펑코는 마블의 슈퍼히어로, 스타워즈 주인공, 미국 스포츠 스타 등 인기 캐릭터와 유명 인물의 플라스틱 보블헤드(bobble head·3등신 비율로 만들어져 머리가 흔들거리는 인형) 피규어를 만드는 장난감 업체다. CNN은 펑코의 장난감이 어린이는 물론 키덜트까지 사로잡아 미국에 '펑코 수집 열풍'을 불렀다고 전했다.

펑코 창업자 마이크 베커는 1998년 '쉬운 기술로 향수를 부르는 장난감'을 모토로 회사를 설립했다. 2017년 11월에는 증시에 상장도 했다. 일각에서는 펑코가 일시적 인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부상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는 40% 이상 폭락했다. 펑코 주가는 약 1년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힘입어 주가는 19일(현지시간) 시점에 주당 19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모가는 12달러였다.

펑코는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의 매출 성장을 기록, 지난해 11월에는 2018년도 매출과 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펑코가 실적 호조를 보이자 월가는 펑코의 2019년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7억4000만 달러(약 8332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CNN은 "애널리스트들이 펑코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며 "오는 28일 발표되는 4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도 무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펑코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투자회사 파이퍼재프리의 애널리스트 에린 머피는 오는 5월 개봉하는 '포켓몬 탐정 피카추' 덕분에 펑코의 새로운 포켓몬 피규어가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머피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포켓몬 캐릭터 중 하나인 '이상해씨(Bulbasaur)' 피규어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유행"이라면서 "펑코는 앞으로 포켓몬 피규어만으로 연간 약 5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펑코는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펀코의 캐릭터 피규어가 인기를 얻자 지난달 27일 미국 영화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펑코와 함께 펑코 피규어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KEB하나은행장〉

금감원, 함영주 3연임 '쓴소리' "재판 중인데 경영 집중 하겠나"

"함 행장, 집행유예 이상 刑 받아도 내규상 직무배제 요건 해당 안돼"

당국, CEO 리스크 집중 점검
민간에 관여… 관치 논란 우려

금융당국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과 관련해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함 행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출을 앞두고 최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 불안정성이 커진다"며 "행장 유고 시 비상계획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함 행장이 연임하면 1심 재판 결과는 임기 중인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하나은행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직원에게만 해당될 뿐 임원은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영상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당국이 'CEO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나선 것은 최근 법원의 채용비리 관련 엄벌 의지가 강해지면서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추후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앞서 사외이사들을 직접 면담해 회장 유고 시의 대책과 지배구조의 안정성 여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 심사 시에도 '지배구조 개선안'을 요구하며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겠냐"며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금융사의 경영승계까지 관여한다는 관치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앞두고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하나금융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출 절차의 투명성과 사외이사 견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함 행장은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초대 통합은행장을 맡아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2조928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2017년에는 통합 이후 최대 실적을 내는 등 탁월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주 지주로부터 받은 쇼트리스트 중 최종 후보자를 정해 3월 첫째 주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을 최종 선출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농협銀, 오산열병합 발전소 지분 인수 약정식

유윤대 부행장(첫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약정참여 기업 실무진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쉐라톤호텔에서 6300억 원 규모의 '오산열병합 발전소 지분인수 및 리파이낸싱 약정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핀테크 손 잡은 우리銀… '디지털 자산관리' 강화

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자산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권에서 뱅크샐러드를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협력으로 우리은행의 디지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데이터 기반 돈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자산관리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뱅크샐러드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만나 디지털 자산관리 분야를 개척할 것으로 보인다.

뱅크샐러드는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부동산, 자동차, 건강검진)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을 찾아주는 핀테크 서비스 업체다. 뱅크샐러드는 이미 신한카드,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현대캐피탈,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과 손을 잡았다.

디지털 자산관리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금융 자산을 조회·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 고객은 모바일뱅킹 애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들의 자산 데이터를 종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의 핀테크 실험은 3월 개편되는 '위비뱅크'를 통해 본격화된다. 우리은행은 오픈 API를 제공해 더 많은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에서 타행 거래 내역 조회 및 계좌이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및 협업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위비 핀테크랩 4기를 모집 중이다. 같은 기간 4월 오픈 예정인 디벨로퍼랩(Developer Lab) 1기 참여 기업도 신청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협력해 투자유치, 금융권 솔루션 도입 및 투자, 금융전산교육과 AWS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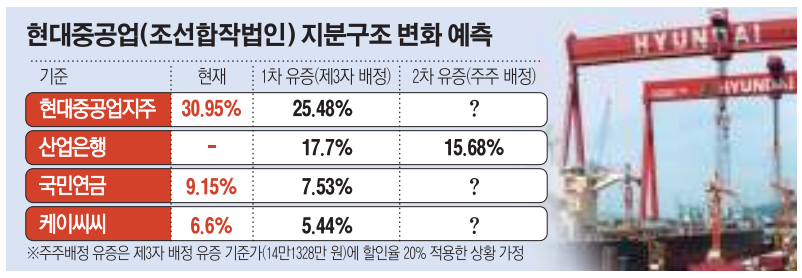
신한銀, 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출금리 0.2%P 특별 인하

신한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는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 0.2%포인트의 특별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신한은행은 경영 컨설팅 확대,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신상품 개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공적자금 회수 부담 느낀 産銀 대우조선에 추가 지출 않기로

현대重 유증 불참 속내
"유증 이후 지분율 감소폭 적어 현대重, 자금 지출 커질 듯"

KDB산업은행이 조선합작법인(현 현대중공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산은은 주주배정 유증 이후의 지분율 변화폭도 크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자금 지출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현대중공업의 주식수는 총 7077만3116주다. 1대 주주는 그중 2190만7124주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다. 지분율은 30.95%다. 2·3대 주주는 국민연금(647만2467주)과 케이씨씨(467만3962주)로 각각 9.15%, 6.6%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제3자 배정 유증 이후 산은은 조선합작법인의 주식 1521만7801주를 얻게 되고, 조선합작법인의 총주식 수는 8599만917주로 늘어난다. 이후 1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조선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25.48%로 줄어든다. 기존 2·3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과 케이씨씨 또한 7.53%, 5.44%로 지분율이 낮아지며 3·4대 주주로 밀려난다. 새로운 2대 주주에는 17.7%의 지분을 보유한 산은이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유증에서 산은은 조선합작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배정 유증이 1조25000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 산은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수권이다. 이후 지분구조는 나머지 주주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 그리고 주당 가격이 얼마로 설정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는 산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추가자금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한다. 비록 대우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은 아니지만 유증의 목적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니만큼 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우조선 매각 발표 내용을 두고도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산은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일찌감치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현대중공업지주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업계는 주주배정 유증 불참에도 산은의 지분율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현대중공업 제3자 배정 유증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20% 적용하면 주당 가격은 11만3062원이다. 이런 가정으로 산은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15.68% 정도로 줄어든다. 채권단 관계자 또한 "주주배정 유증 이후로 지분율은 16%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2010년 산은이 GM대우(현 한국GM)의 유증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27.9%에서 17%로 크게 줄어들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당시 지분율 축소에 따라 산은은 사외이사 3명 추천권과 비토권을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이 유증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현대중공업 그룹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은의 신주인수권과, 유증 이후 실권주들을 현대중공업지주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FI, 풋옵션 행사 가격 '줄다리기'

"주당 24만원" vs "41만원"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앞두고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공방이 거세다. FI가 투자금 회수 지연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신 회장 역시 협상과 동시에 과거 FI와 맺었던 풋옵션 관련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분 9%를 보유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어피니티) 등 주요 FI는 풋옵션 관련 중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되는 재판은 이르면 2개월에서 최장 7개월 안으로 중재를 진행한다.

문제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가격 차이다. FI는 2011년 신 회장과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전제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이들은 지난해 10월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 행사로 주당 40만9000원, 총 2조123억 원에 지분을 인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회장은 FI의 주당 가격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매입가는 24만500원으로 약 1조20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 측은 19일 FI 대표 격인 어피니티를 만나 중재재판 신청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 FI와 맺은 주주 간 계약(SHA) 무효소송과 현재 FI가 요구하는 주당 가격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으로 교보생명 기업가치 하락은 물론 기업상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상장 예비심사에서 주주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은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중재재판이 진행되면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교보생명은 "예정대로 상장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허창수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 리더 돼야"

〈GS 회장〉

매년 신임임원 만찬 역경극복 강조
지난해 볼트, 올핸 최호성 골퍼
"장애 딛고 '낚시 스윙' 만들어"
산업 격변기 창의적 혁신 당부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미국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베리·자메이카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프로골퍼 최호성 선수'

허창수 GS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신임임원과의 만찬 자리에서 GS인재와 경영의 지향점으로 거론한 선수들이다. 이들은 관행을 깨고 열정으로 약점을 극복해 세계적인 선수나 감독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2일 제주도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열린 GS 신임임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낚시 스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프로골퍼 최호성 선수를 거론하며 관행을 깨고 도전과 새로운 역사를 쓰라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최 선수가 최근 세계 골프계의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명 '낚시 스윙'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이한 동작 때문인데, 공을 치고 난 후의 자세가 낚시채를 잡아채는 동작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소개했다. 이어 "비록 미국 무대의 첫 도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세계 골프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는 반응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회장은 최 선수의 실력과 인기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과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실제 최 선수는 고교 시절에 냉동 참치를 해체하다 엄지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레슨받을 형편이 안돼 독학으로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불굴의 집념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낚시 스윙'을 만들어 냈다.

허 회장은 "GS가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차원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기존 지식과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혁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대건곤소 심고대악비'(眼大乾坤小 心高岱岳卑 : 안목이 크면 천지가 작아 보이고, 마음이 높으면 태산이 낮아 보인다)라는 조선후기 학자 이상정(李象靖)의 문집인 대산집(大山集)에 실린 한 글귀를 인용하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해 지금보다 나은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허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진화 속에서 시장과 사업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변화의 맥락을 파악해 미래의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조직구조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신임임원들과의 만찬에서 허 회장은 우사인 볼트가 큰 키 등 빠른 스타트가 중요한 단거리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데다 선천적인 척추측만증이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기록 보유자가 된 것을 예로 들며 '도전과 혁신'정신을 강조했다. 앞서 2017년에는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를 처음 시독한 딕 포스베리 선수처럼 새로운 성공방식을 찾아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또 2016년에도 라니에리 감독을 예로 들며 선수 개개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허 회장은 위기극복, 혁신, 승리의 아이콘으로 스포츠인을 거론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돌파 정신을 임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허 회장은 2005년 GS 출범 이래 해외출장 관계로 한 차례 거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신임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만큼 이 행사를 각별히 챙기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도 넥타이 푼다
내달부터 자율복 근무

현대자동차가 자율복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르면 3월부터 자율복 근무제를 도입한다. 전면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현재도 각 본부에 따라 자율근무복을 시행중이거나 특정 요일을 지정한 '캐주얼 데이'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근무복장에 대해 재계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와 SK 등이 오래전에 비즈니스 캐주얼을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본격적으로 자율복 근무가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연구개발본부가 부서별로 일찌감치 자율복 근무를 시작했다. 일반 사무직은 2017년 국내영업본부가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면서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양재동 본사 일부 조직에서도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정하면서 전면적인 자율복 도입을 예고 했다. 향후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 주요 계열사로 이런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현대차가 자율복 근무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그룹 수석부회장에 오른 정의선 부회장이 있다. 그룹 전반적인 경영을 주도하는 정 부회장이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2017년 6월 코나 출시 행사에서 청바지와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넥쏘의 자율주행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셀프 카메라' 형식의 영상에 출연해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화학 ABS 1위 굳히기
中 화남공장 3월 가동
세계 점유율 21→26% 전망

LG화학이 중국 화남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고기능합성수지) 공장 증설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중 가동에 돌입한다. 가동 후 LG화학은 200만 톤의 ABS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그간 유지해 온 시장점유율 1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ABS는 여러 화학물질을 조합해 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강도가 강하고 내열성, 가공성이 뛰어나 자동차, 가전, IT 소재 등에 쓰인다.

24일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화남 ABS 공장은 증설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이다"며 "화남 공장을 비롯, 전체 2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외 ABS 공장들이 3월부터 풀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에 증설된 화남 ABS공장 30만 톤 외에도 국내 여수공장과 중국 닝보공장에서 각각 90만 톤, 80만 톤의 ABS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LG화학의 ABS 세계 시장 점유율도 21%에서 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어온 글로벌 ABS 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게 된 셈이다.

특히 증설된 화남공장의 지리적 위치는 향후 판로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 세계 ABS 수요의 5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화남 지역의 수요가 절반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타이밍도 좋았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올해 자동차·가전제품 소비 진작 정책을 시작하면서 ABS 수요를 자극, ABS 업황이 내년까지 상승 사이클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는 회복되는 반면, 2020년까지 글로벌 신규 증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국발 수요 회복이 곧바로 ABS 스프레드 개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서울 세 곳서 갤S10 5G폰 체험 삼성전자가 자사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갤럭시 S10 글로벌 공개에 맞춰 23일부터 갤럭시 스튜디오에 갤럭시 S10 5G를 포함해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갤럭시 S10e' 등 갤럭시 S10 전 제품군이 전시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서울 주요 복합 쇼핑몰과 전국 역사, 주요 디지털프라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갤럭시 S10 5G 체험 공간은 이 중 △타임스퀘어(영등포) △코엑스(삼성동) △롯데월드몰(잠실) 등 세 곳에 마련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갤럭시 F 아닌 갤럭시 폴드로 이름 정한 건…"
첫 폴더블, 카테고리 정의 차원
갤럭시 '경험 혁신가' 비전 선포
S10끼리 배터리 공유 캠페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브랜드를 선보인 지 10년이 되는 올해 '경험 혁신가(Experience Innovator)'라는 새로운 마케팅 비전을 선포했다.이를 위해 갤럭시S10에 무선충전을 공유(파워 셰어링)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장소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글로벌 브랜드마케팅그룹 상무는 갤럭시 마케팅 전략 브리핑에서 "올해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스플레이 등 4가지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정립하고, 경험 혁신가(Experience Innovator)로서 소비자들에게 더 끊김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20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 2019'가 진행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장 상무는 폴더블폰의 제품명으로 '갤럭시 F'가 아닌 폴드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일 처음 나온 제품이라서 폴더블의 카테고리를 정의하자고 해서 폴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갤럭시 핏·핏e, 갤럭시 버즈 등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3종을 모두 갤럭시로 이름을 통일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은 기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갤럭시로 모아서 경험을 다 주자는 취지로 통일했다. 통합된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상무는 "배터리가 없는 친구를 위해 무선으로 이를 빌려주는 셰어링(공유)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브랜드 마케팅과 광고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힌두교에서 '업'(業)을 의미하는 카르마(Karma)를 붙여 '배터리 카르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른 사람에게 배터리를 많이 공유해주면 자신도 언젠가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스토리다.

장 상무는 이어 S11부터는 두 자릿수라서 소비자들의 입에 안 붙을 것 같다는 지적에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이름이 될까 고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갤럭시 S10에 적용한 '프리즘(Prism)' 컬러에 대해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차세대)을 위해 젊고 대담하고 다이내믹하면서 차별화한 컬러를 전략으로 삼았다. 그래서 빛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내는, 홀로그램 같은 느낌의 미래지향적 색깔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미국)=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BTS 홍보 지원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 글로벌 홍보대사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캠페인을 지원한다.

현대자는 영국 런던의 중심 '피키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 전광판〈사진〉에 이달 22일부터(현지시간) '방탄소년단 글로벌 캠페인' 티저 영상을 상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BTS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BTS 글로벌 캠페인'은 전세계 팬들이 보유한 방탄소년단 관련 글과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수집, 공유하는 사이트 '아미피디아' 론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BTS 글로벌 캠페인 티저영상은 영국 외에도 대한민국 서울, 미국 LA와 뉴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홍콩 등 전세계 7개 지역에서 공개된다. 현대차가 지원하는 영국 피카딜리 광장 영상이 가장 규모가 크다.

캠페인 티저 영상에는 현장에서 옥외광고를 시청하는 팬들이 바로 '아미피디아(ARMYPEDIA)'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와 함께 BTS가 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등을 담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만의 로보어드바이저로
세상 편한 자산관리의 시작
신한 SOL Rich

신한 SOL Rich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펀드 추천까지 알아서 자산관리 해주니까

복잡한 세상, 편한 자산관리
신한 SOL Rich | 쏠리치

복잡하고 어려웠던 자산관리는 끝! 신한 SOL Rich로 쉽고 편하게 자산관리 시작!

신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고객의 자산진단, 자산배분, 상품추천,
포트폴리오 설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Full 자산관리 서비스

쏠리치 펀드
개인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투자상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을 위한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쏠리치 퇴직연금
신한은행만의 자산배분 전략으로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설계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Available on the App Store
ANDROID APP ON Google Play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8-2-2851호 (2018.12.13~2019.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868호 (2018.12.13~2019.6.30)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쏠리치 멀티전략 I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참여 예정이며, 신한-디셈버 ISAAC 알고리즘은 1차 테스트베드 통과하여 운영중입니다.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hinhan.com, 1577-800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진짜 출퇴근 카풀… 합법 안에서 해법 찾았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⑫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의 차량 공유업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카카오를 넘어섰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 표적이 된 것.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카풀 갈등의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도 3월 카풀 서비스를 론칭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작년 5월 법인을 설립한 위모빌리티다.

박현(40) 위모빌리티 대표는 럭시의 최고마케팅경영자(CMO) 출신이다. 럭시는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됐다. 카풀 갈등이 절대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하면서도 자신 있게 시장에 뛰어든 박 대표를 2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대표는 카풀 갈등이 태동할 때부터 결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는 "서비스가 성장하려면 적어도 논쟁거리는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위풀'이 철저하게 합법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은 이유"라고 밝혔다.

위풀은 작년 말부터 '진짜 카풀'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가짜 카풀'은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비판하는 지점이다.바로 운전자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는 매칭으로 승차 서비스를 하는 것.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박 대표는 승차공유이용자모임 '카풀러'에 '가짜 카풀'을 비판했다가 비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타 카풀 앱을 사용했었는데 퇴근 경로가 같지 않은 운전자가 지역을 넘어왔던 문제점을 올렸더니 악플이 달리며 난리가 났다"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카풀을 옹호하는 입장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위풀은 '진짜 카풀'로 정면 대결하기 위해 집과 직장을 미리 등록하고, 동선이 맞는 사람끼리 이어주는 '일정예약형'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울 시내에서 10㎞ 이하를 출퇴근하는 단거리 승객에는 배차하지 않고, 서울~수도권 간 통근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동시에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핀테크 인증정보기술을 이용해 운전자의 범칙금 내역,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한다. 박 대표는 안전 관리에 미흡했던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의 예를 들었다. 디디추싱은 최근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데 비용을 크게 투자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전체 직원의 15%인 약 2000명을 감원했다.

박 대표는 "위풀의 안전 시스템은 전 세계 카풀 서비스 중 최고"라고 자신했다. 이에 더해 운전자는 카풀 보험도 들 수 있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자리한 본사에서 위풀 앱을 보여주고 있다.

집·회사 등록후 동선 맞춰 이어주는 일정예약형 서비스 '위풀'
핀테크 이용 운전자 범칙금 내역 확인·카풀 보험 적용해 안심
서울~수도권 10㎞ 이상 장거리 통근자 집중 공략 내달 론칭

박 대표는 "보험 업계랑 조율만 2~3년이 걸렸다"며 "법인은 작년 5월 설립했지만, 위풀은 준비 끝에 탄생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또 대게 카풀 앱들에서 운전자 비용 정산이 일주일가량 기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위풀은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풀은 원래 지난달 론칭 예정이었다. 작년 12월 택시 기사 분신 사망 사건으로 1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지연되면서 론칭일도 밀린 것. 올 초 다시 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 역시 보류 상태다.

박 대표는 "두 번의 투자 기회가 무산될 때마다 분신 사건이 있었다"며 "그런 큰 사건이 터지면 벤처캐피털(VC)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3월에는 베타 버전으로라도 론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럭시에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CMO로 역임한 그는 그 전에는 광고회사 대표로 재직했고, 숙박 O2O, 모바일 쿠폰 업체 등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다채로운 경험을 살려 위풀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편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과거의 경력을 바탕 삼아 박 대표와 위모빌리티를 판단하는 시선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통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한국 사회 특유의 시각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내달 론칭 뒤 일단은 장거리 카풀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쓴다는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그 뒤에는 자동차 보험 등 세부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투자 영화 10편 중 9편 손익분기점 못 넘어

극한직업 '대박'… 실제 투자 대부분 '쪽박'

영화 관람 이후 투자결정 제도 필요
'최저금리 보전형'으로 손실 줄여야

와디즈 영화 펀딩 수익률

※출처 : 와디즈, 영화진흥위원회

구분	제목	손익분기점 (관객 수)	실제 관객 수	수익률 (추정)
손실 가능형	살인소설	48만 명	4만9000명	-20%
	당신의 부탁	38만 명	2만5000명	-20%
	1급비밀	113만 명	21만 명	-70%
	중독노래방	18만 명	9000명	-90%
	언더독	200만 명	18만 명	-100%
최저 금리 보전형	데스위시	30만 명	7915명	3%
	속닥속닥	55만 명	21만 명	3%
	배반의 장미	55만 명	4만1000명	3%
	물괴	300만 명	72만 명	5%
	마녀	270만 명	318만 명	8.60%

영화 극한직업이 누적 관객 1500만명을 넘어서며 대박 소식이 전해지자 영화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고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투자받은 영화 대부분이 손익분기점(BEP)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익분기점 이하일 때 손실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 펀딩 5개 영화 모두 20~100% 손실을 기록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따르면 최근 영화 10편(검색 상위 표출 순)의 펀딩 중 손익 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마녀'가 유일했다. '마녀'는 손익분기점 270만 명을 넘은 31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해 8.6%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반면 '마녀'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할 때 손실까지 떠안도록 설계된 투자에선 원금 전체를 잃는 경우도 나왔다.

예컨대 영화 언더독은 30만 명이 이하일 때 투자금 100%를 잃게 되는데, 실제 관객수는 18만명에 그쳤다. 투자자 모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중독노래방' 90%(추정치) 손실, '1급 비밀' 70% 손실, '당신의 부탁'과 '살인소설'이 20% 손실율을 기록했다. '당신의 부탁'과 '살인 소설'은 관객수는 기대치에 크게 모자랐지만, 최대 손실을 20% 이하로 제한했다.

손실가능형이 손실률이 높은 반면, '최저금리 보전형'은 관객 수와 상관없이 최저 수익률을 보전해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더라도 제작사가 3~5%의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영화 업계와 투자업계 등 관계자들은 흥행몰이를 한 영화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투자의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큰 업계 특성을 고려해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제작사와 와디즈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계절적 특성과 예고편의 조회수, 소셜미디어(SNS) 언급 등 영화의 외적 요소가 주로 고려된다. 감독과 출연진의 평판도 제시되지만,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각에선 투자자들이 직접 영화를 미리 보지 않을 경우 '수박 겉 핥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 홍보성 이벤트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해결책으로 시사회 등을 통해 영화 관람 이후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흥행실패와 무관하게 최저 금리를 보전해 주는 영화를 선별하게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 영화 투자 전문가는 "영화 흥행을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이 열려있는 투자를 지양하고 최저 금리 보전형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저 금리 보전형의 경우 대부분 은행 이자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김우창(가운데) 고려대 명예교수가 16일 네이버 열린연단 5주년 특별대담에서 말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맡은 이승환 고려대 교수, 오른쪽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 사진제공 네이버

네이버 열린연단 5주년 특별대담

학문과 교육의 미래를 묻다

김우창·오세정·이승환 교수 참석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교육이 의미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공부'의 길로 인도하면서 다양한 강연과 교양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네이버는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강연 프로젝트가 5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학문과 교육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대담에는 열린연단 자문위원장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대담자로 나섰으며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사회를 진행했다.

5년간 234회의 강연을 진행한 열린연단에 대해 김우창 교수는 "학문의 전 영역, 인문사회과학 전부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일반 대중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생활 지적 습관을 바꿔야 됐고 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고급 문화로서의 교양교육이 이렇게 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열린연단처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까지 아우르며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까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열린연단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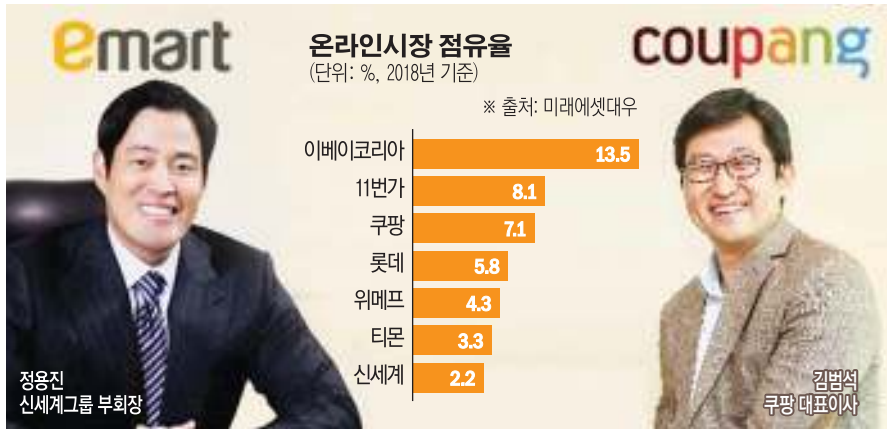
특히 김 교수와 오 총장은 학문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문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학문이라는 게 자립적이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살려야 한다"며 "전문적인 교육·연구, 산업체와의 협동 연구 그리고 학문 상호 간의 교류가 대학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온라인’ 살림 합치는 신세계·이마트…쿠팡 넘을까

내달 1일 이마트몰 통합법인
최우정 대표 선임한 정용진
“유통채널 핵심으로 키울 것”
신선식품 승부수 물류 확대
라이벌 쿠팡과 차별화 관건



신세계그룹이 ‘한국판 아마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통합법인이 내달 공식 출범한다. 그룹 내 흩어져 있던 온라인 사업부를 한데 모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신출점 절벽에 직면한 데다 실적까지 부진한 신세계로서는 오프라인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 온라인 강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해 2조 원대의 실탄을 확보해 확장세에 나서는 쿠팡의 공세가 거침 없다. 신세계가 오프라인의 강점을 접목해 얼마나 차별화 전략을 펼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 온라인 통합 법인 출범 =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은 3월 1일을 기일로 합병 법인으로 재탄생한다. 지난해 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디지털 시프트’를 선언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강력한 출사표를 던지고 1년 이상 공들인 결과물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를 각각 물적분할해 떼어냈다. 지난달에는 이마트몰은 잔존법인으로, 신세계몰은 소멸법인으로 합병이 결정됐다. 합병 후 온라인 통합법인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65.1%를 보유한 이마트가 된다. 신세계는 지분율 34.9%로 2대 주주에 오르며 지분 관계를 정리했다.

지난해 말에는 그룹 내 이커머스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최우정 부사장을 온라인 통합법인 대표로 선임했고, 마이클럽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동훈 상무보에게 플랫폼을 맡기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해외 투자운용사 어피니티와 비알브이 등의 투자 1조 원도 끌어내면서 실탄도 마련했다.

신세계는 통합법인의 온라인 매출을 2023년까지 현재의 5배 수준인 약 10조 원으로 키워 온라인 업계 1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승부처는 신선식품이다. 미래에셋투자에 따르면 2013년 4조4000억 원이던 국내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은 2017년 11조8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신세계는 최다 3만 개에 이르는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오프라인 경쟁력을 신설법인에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물류 및 배송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포와 용인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확장해 수도권을 커버하고, 그 외 지역은 이마트 점포내 P.P(Picking and Packing)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김포에 짓고 있는 추가 온라인 전용센터도 연내 가동해 물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쿠팡 공세 이겨낼 수 있을까? =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지금까지 신세계그룹의 성장을 백화점과 이마트가 담당해 왔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온라인 신설법인이 이끌게 될 것”이라며 “핵심 역량을 모두 집중해 온라인 사업을 백화점과 이마트를 능가하는 핵심 유통채널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신세계의 목표인 ‘2023년 매출 10조 원, 온라인 1위’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시장은 옥션과 G마켓 등을 보유한 이베이가 13.5%, 11번가가 8.1%, 쿠팡이 7.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신세계는 2.2%에 불과해 신설법인이 온라인 지배력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이커머스의 라이징 스타인 쿠팡이 꼽힌다. 우선 온라인 시장에서 체급 차이가 크다. 지난해 11월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2조2000억 원을 투자받은 쿠팡은 약 10조 원의 미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신세계 온라인 신설법인의 추정 기업가치는 약 3조 원에 불과하다. 이마트몰 1조2000억원, 신세계몰 5000억 원에 어피니티의 투자 예정금액 1조 원을 합한 수치다.

게다가 최근 쿠팡이 공들이는 분야 역시 이마트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신선식품이다. 쿠팡의 신선식품 유통 품목 수는 약 8200여 개로 아직 이마트(3만 개)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만 쿠팡은 지난달 온라인 업계 최초로 새벽배송 ‘로켓프레시’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넓히며 신선식품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지난해 소프트뱅크의 투자 유치 후 쿠팡은 곧바로 고양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약 4만 평 규모로 기존 메가 물류센터인 인천과 덕평보다도 1만 평 이상 크다. 또한 각 지역에 신선식품 물류 허브를 구축하는 등 올해까지 물류 인프라를 2배 확장할 계획이다. 쿠팡이 전국 곳곳에 보유한 물류센터는 축구장 151개 넓이에 이른다.

이에 비해 이마트는 지난해 하남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세울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세계가 현재 운영 중 또는 계획 중인 물류센터만으로는 쿠팡에 한참 역부족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투자받은 2조 원을 물류센터 확장뿐 아니라 로켓배송 한도를 없애고 상품 카테고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공격적인 전략에 쓸 것”이라면서 “이제 걸음마를 떼는 신세계 온라인 통합법인에 최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온라인 통합법인 출범이 온라인 강화보다 정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정 부회장이 신설법인을 발판삼아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 신설법인의 최대주주가 정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이마트인 만큼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보다 그룹 후계구도에서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주현 기자 jooh@

미세먼지 마스크 한자리에

이마트는 전국에 있는 ‘자주(JAJU)’ 매장에서 취향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마스크 14종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 ‘KF94 미세먼지 황사용 마스크 7P 대형(블랙·도트·그레이·네이비)’을 각 9900원에, ‘블랙 스타일 마스크 7P’를 5900원에 판매한다. 자주 황사마스크는 KF94로 높은 식약청 인증 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디자인도 뛰어나다.

사진제공 이마트

〈기업 PR〉

롯데 “세상 모든 이웃에 도움 되길” 플레저박스 캠페인

공식 페이스북서 자원봉사자 모집

롯데는 세상의 모든 이웃이 즐거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2013년부터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 4~5회 진행되는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선정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담아 전달한다.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는 생리대 1년치, 청결제, 핸드크림을, 미혼모들에겐 육아용품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도서 등을 담는 식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8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임직원, 롯데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참여해 그룹홈과 ‘맘(mom)편한 꿈다락’의 아이들 2500여 명에게 전달할 박스를 만들었다. 이날 플레저박스에는 방한용품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등을 담았다.

롯데가 지난해 12월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진행했다. 80여 명의 자원봉사자·임직원 등이 참여해 그룹홈과 ‘맘(mom)편한 꿈다락’의 아이들 2500여 명에게 전달할 박스를 만들었다. 사진제공 롯데

이 캠페인의 특징은 롯데 공식 페이스북 팬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이다. 매회 지원 대상 및 물품이 정해지면 롯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일반인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임직원, 롯데장학재단 장학생, 롯데 대학생 서포터즈 U-프렌즈 등 회당 50~60명 이상이 함께 물품을 상자에 담고, 포장 및 배송 지원까지 맡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박스는 한 회당 평균 1200여 개다. 지금까지 전달된 박스는 4만2000박스를 넘어섰다. 그간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은 1700명에 달한다. 롯데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도 명물’ 땅콩크림라떼가 편의점에?

‘지역 먹거리’ 주목하는 식품업계

GS25 ‘큐브 스테이크 도시락’
세븐일레븐 ‘먹쉬돈나…’ 등

‘큐브스테이크 도시락, 먹쉬돈나 쫄볶이, 블랑로쉐의 땅콩크림라떼까지.’

지방은 물론 해외의 맛집 메뉴를 동네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편의점을 비롯해 식품·외식업계가 맛집 대표 메뉴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밥족을 겨냥한 편의점은 국내는 물론 해외 먹거리까지 도시락 메뉴로 선보이는 등 가장 활발하게 관련 분야 제품을 내놓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푸드트럭 대표 메뉴인 ‘유어스큐브스테이크 도시락’을 선보였다. 셰프푸드트럭과 공동 개발한 큐브스테이크 도시락은 훈제한 두툼한 돼지 목살을 먹기 좋게 찹핑해 푸드트럭에서 먹던 맛과 향를 그대로 재현했다. 큐브스테이크(120g)에 햄야채볶음밥, 토마토파스타, 갈릭베이컨포테이토 샐러드, 버터롤빵, 딸기잼, 코울슬로 등 사이드 메뉴까지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삼청동 유명 떡볶이집과 손잡았다. ‘먹쉬돈나쫄볶이’는 삼청동 즉석떡볶이 전문점인 ‘먹쉬돈나’의 레시피를 반영한 특제 소스를 활용한 제품이다. ‘먹쉬돈나’는 2030의 소비 트렌드와 맞는 네이밍으로도 알려져 있다. 먹쉬돈나는 ‘먹고, 쉬고, 돈 내고, 나간다’는 의미를 줄임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마트24는 해외 먹거리를 도시락으로 내놨다. 치킨가라아게 유부초밥과 하와이안 쉬림프 도시락이 주인공이다. 치킨가라아게 유부초밥은 일본 교토 오이나리산 유부피를 사용했으며 하와이안 쉬림프 도시락은 하와이 현지 푸드트럭의 갈릭 새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했다.

제주도와 울릉도 현지의 맛으로 승부수를 띄운 기업도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주시 우도면에 위치한 카페 ‘블랑로쉐’의 대표 메뉴인 땅콩크림라떼를 칸타타에 담은 ‘칸타타 땅콩크림라떼’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칸타타 이색커피 공개수배’ 이벤트에서 소비자 투표와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도 블랑로쉐의 대표 메뉴 땅콩크림라떼를 제품화한 것이다. 소상공인 카페 홍보를 지원하는 ‘칸타타 상생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다. 제품 패키지에는 우도 블랑로쉐의 이미지를 담았으며 블랑루쉐를 운영하는 하상봉, 배지은 부부는 제품의 광고 모델로도 발탁됐다.

외식전문기업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본도시락’은 쫄깃한 오징어와 우삼겹구이, 울릉도 청정 자연지역에서 자란 나물이 조화를 이루는 ‘울릉도 한상 도시락’과 제주 바다의 향이 가득한 모자반을 듬뿍 담은 ‘제주 모자반 쇠고기 미역국’을 도시락으로 선보였다.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마세다린이 운영하는 코리아·베트남·타이식당 ‘코베타이’는 태국 길거리 국수로 유명한 ‘꾸웨이띠오 느아 나 텅’을 신메뉴로 출시했다. 꾸웨이띠오 느아 나 텅은 태국 길거리 쌀국수로 시원한 국물과 고수, 향신료가 첨가된 메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실적 부진에도 현금배당 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영향 606곳 중 338개사 전년보다 확대
현대건설기계·롯데지주 등 62개사는 올해부터 배당 시행
동남합성 1724% 증가 '최고' 우리기술투자 -50% '최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두며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현금 배당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맞물려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8년 결산 현금 배당 결정을 공시한 상장사 606곳 중 절반 이상인 338개사가 전년 대비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반면 153곳만이 현금 배당 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한 상장사 1478개사 중 817곳(55%)이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하거나 손실 폭이 확대되는 등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확정 공시한 606개사의 현금 배당금 규모는 27조4882억 원으로 지난해(22조1478억 원)보다 24% 늘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나 롯데지주, 동부건설, 태평양물산 등 배당을 실시하지 않던 62개사들도 올해 현금 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다.

증권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행동주의 등 투자자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기업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맞물려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의 관심은 주주환원 확대 여부에 쏠려있기 때문에 각 사의 배당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상장사 배당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종목명	전체 현금배당금액		증감률
	2017년	2018년	
동남합성	2억	45억	1724.39%
디티알오토모티브	6억	87억	1328.31%
대원	3억	28억	724.78%
토니모리	3억	17억	501.03%
AP시스템	4억	25억	460.41%
RFHIC	11억	45억	310.70%
GS건설	211억	787억	273.70%
국제약품	2억	5억	212.12%
에코마케팅	20억	63억	211.94%
한일네트웍스	8억	24억	193.73%
현대리바트	20억	58억	190.05%
BGF리테일	173억	463억	168.00%
현대그린푸드	70억	183억	162.48%

※출처 : 에프앤가이드

현금 배당 규모가 가장 커진 곳은 동남합성으로 2017년 2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1724.39% 증가했다. 이어 디티알오토모티브(1328.31%), 대원(724.78%), 토니모리(501.03%), AP시스템(460.41%), RFHIC(310.70%)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당 배당금을 올린 기업도 297곳에 달했다. 지난해 현금 배당금액이 주당 200원에 불과했던 동남합성은 올해 3400원으로 확대했다. RFHIC도 50원에서 200원으로, GS건설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했다. 현대리바트(190.00%), 한일네트웍스(185.71%) 등도 증가했다.

한편 결산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배당을 줄인 기업도 있었다. 우리기술투자의 지난해 별도 잠정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 전년(1억 원)보다 2만4247% 증가했지만 현금 배당 규모는 15억 원에서 8억 원(-49.97%)으로 줄였다. 두산, 기아차, 경동제약 등도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배당 규모는 축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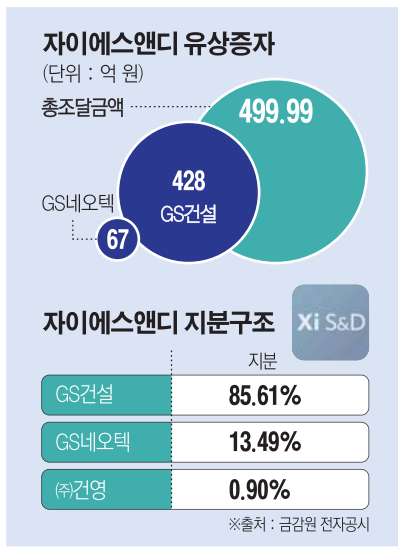
반면 적자를 기록했지만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도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1.8% 감소한 1조2018억 원을 기록했지만 현금 배당은 7061억 원에서 7174억 원(1.61%) 늘렸다. GS홈쇼핑과 쌍용양회도 실적과 상관 없이 배당금을 확대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영업이익은 200조 원에서 올해 179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현금 배당액은 29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현재는 성장이 아닌 분배의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축적된 현금을 분배하는 배당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GS건설, 20년된 자회사 첫 유증 참여 속내는

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오너家 개인회사 엔씨타스 해산
용역 업무 '자이에스앤디'로 이관
일감 논란 벗고 계열사 지배력 챙겨



GS건설이 설립 20년된 자회사의 첫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최대주주로서 자금조달 대부분을 책임지는데,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해당 자회사의 최근 이력이 눈에 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자회사 자이에스앤디의 유상증자에 참여, 25일 자금 납입을 앞두고 있다. 앞서 자이에스앤디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지분 85.61%를 보유한 최대주주 GS건설이 428억500만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자금은 2대주주인 GS네오텍이 책임진다.

자이에스엔디는 2000년 8월에 설립된 회사로, 주택관리업을 비롯해 홈네트워크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최대주주는 구 LG건설로, 유상증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확장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해산된 또 다른 계열사 엔씨타스의 용역업무를 도맡은 데 이어 7월엔 전자경비 및 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인 앤캅스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기업은 해산된 엔씨타스다. GS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방침을 밝힌 지난해, 자회사 GS ITM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엔씨타스 역시 해산했다.

엔씨타스는 허윤홍 GS건설 부사장(29.30%)을 비롯해 오너 일가의 지분으로만 이뤄진 계열사로, GS계열의 파르나스 호텔을 비롯한 건축물 유지 관리가 주 수익원이었다. 내부거래 매출은 2017년 기준 26.4%다. 공정위는 당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기준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을 20%로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제재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엔씨타스가 해산되면서 해당 용역 업무는 자이에스앤디로 이관됐다.

별도로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자이에스앤디는 파르나스타워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전기기사 및 방재기사 등을 채용·관리하며 사실상 용역업무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의 개인회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청산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된 계열사를 키워주는 식의 경영 체계가 자리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GS건설은 현재 허창수 GS그룹 회장(지분율 9.40%)을 비롯해 허진수 GS칼텍스 회장(4.96%), 허정수 GS네오텍 회장(3.80%)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엔씨타스 때와 달리 건설사를 거친 간접 지배구조로 재편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선 벗어났지만 자이에스앤디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되는 구조인 셈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해 공정위가 지정한 GS그룹 소속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 14개사지만 규정이 강화될 경우 최소 29사로, 전체 계열사의 40.8%가 대상이 된다"며 "GS그룹처럼 총수일가의 수가 많아 경영권 승계 이슈까지 겹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이벤트(합병, 분할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베트남펀드로 몰리는 시중 자금

작년 경제 성장률 7.1%
2차 북미정상회담 수혜 기대
연초 이후 307억 원 순유입

주요 지역 펀드 수익률 자금유입액 현황
(단위: 억 원, 22일 기준)
※ 출처: 에프앤가이드

지역/국가	펀드수	6개월	연초이후	1년
중국	166	216	5	-423
베트남	16	1,698	307	4,558
인도	25	-198	-17	-802
일본	44	-665	-228	-1,573
유럽	38	-867	-124	-2,889
러시아	10	-602	-207	-1,088
북미	48	580	-183	2,126
브라질	9	-121	-46	-159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베트남펀드에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익률은 부진했지만 높은 경제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지 베트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베트남펀드에는 307억 원(22일 기준)이 순유입됐다. 해외지역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다. 같은 기간 중국펀드에는 5억 원이 유입되는 데 그쳤고 미국펀드에서는 183억 원이 순유출됐다. 베트남펀드는 최근 1년간 4558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꾸준히 돈이 몰리면서 국내 16개의 베트남펀드의 설정액 규모는 1조525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펀드(166개)의 전체 설정액(7조343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베트남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2.79%로 부진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베트남 증시 대표지수인 호찌민(VN)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지난해 호찌민 지수의 연간 성과는 -9.3%다. 하지만 최근 반등에 성공하면서 베트남펀드도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8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국(12.44%)과 러시아(11.55%) 등 다른 신흥국 펀드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 베트남 펀드의 인기는 여전하다.

개별펀드 중에서는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8.46%), 유리베트남알파증권자투자신탁(7.66%)과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7.30%) 등이 성과가 좋았다. 베트남 펀드의 자금 유입은 저가 매수 수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1%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크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베트남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소개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할 정도로 이번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거 베트남은 미국과 적대국이었지만, 현재 국민 다수가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SK, 677만5000원… 환산주가 '넘버1'

SK바이오팜 신약 기술수출 성과
"美 FDA 승인땐 장부가 10배 ↑"

SK가 제약 자회사 SK바이오팜의 신약 기술 수출 성과에 힘입어 네이버(NAVER)와 넷마블을 밀어내고 환산주가 순위 1위에 올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의 환산주가는 677만5000원(2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중 실질적으로는 최고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산주가는 회사마다 제각각인 주식의 액면가를 동일하게 5000원으로 맞춰 계산한 1주의 가격이다. 예컨대 액면가가 200원인 SK의 경우 주가에 25를 곱해 환산주가를 산출한다. 결국, 환산주가가 가장 높은 주식이 실질적인 시장의 황제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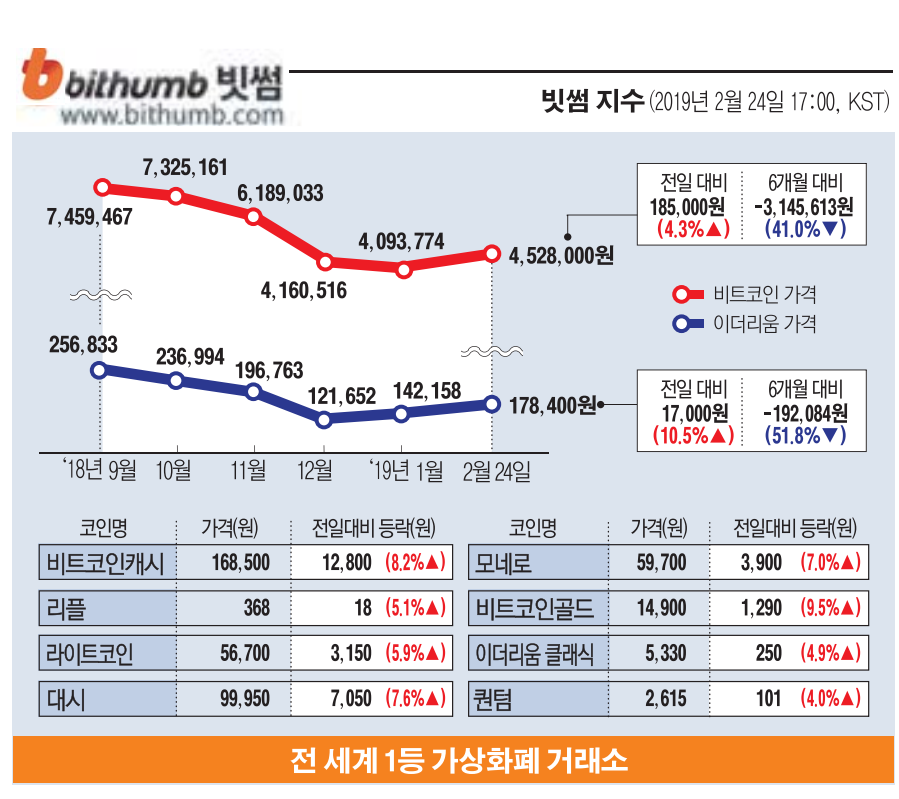
SK에 이어 환산주가 2위는 네이버(635만 원)가 차지했다. 이어 넷마블, 삼성물산, 엔씨소프트, 삼성화재,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에스, 아모레퍼시픽 등이 상위 10위권에 포진했다.

SK는 네이버와 넷마블 등을 제치고 올해 2월부터 환산주가 1위로 올라서 정상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1월 스마트글라스 시장 신규 진출 및 2월 초 제약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신약 기술수출 등 투자 성과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SK바이오팜의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게 되면 기업 가치는 장부가의 10배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면서 "SK의 이러한 투자 결실은 곧 특별배당 등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위인 네이버는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에 성장동력 둔화가 겹치면서 환산주가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 확대가 어려워졌고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금융업 진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건설사 해외 공사 수주 부진

현재 34억 달러 수주… 33%↓
중동 지역에선 76%나 떨어져
선두 GS건설도 신규계약 없어

국내 건설사들이 연초에 해외 수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공략 선두에 서야 할 대형 건설사들의 활약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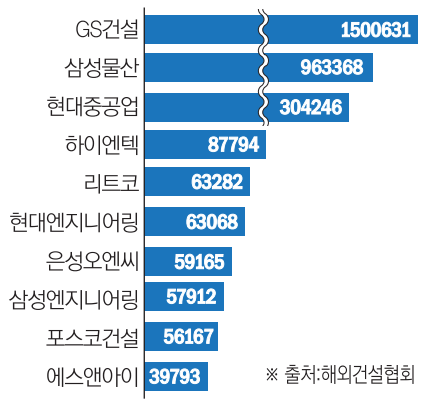
2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은 34억 546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주를 보면 지난해 이어 중동 시장의 침체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중동에서의 수주 실적은 3억6962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76%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해외 수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26억4933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1% 줄었다. 특히 중국에서만 16억9057만 달러를 수주해 2018년 한 해 실적(13억1259만 달러)을 앞지른 상태다.

반면 유럽은 1억8166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20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며, 태평양·북미 지역도 1억768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소폭 앞서는 상태다.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1000달러, 2019년 2월 24일 기준)



※ 출처:해외건설협회

현재 해외 수주 선두에 선 기업은 GS건설로 나타났다. GS건설은 15억63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3억4880만 달러)의 4.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어 실적이 많은 곳은 삼성물산이지만 9억6337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85% 수준에 그쳤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계약 건수는 없고 기존 계약 건의 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된 상황이다.

이어 상위 10위권 내로 해외 수주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은 현대중공업, 하이엔텍, 리트코, 현대엔지니어링, 은성오엔씨,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에스엔아이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GS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등이 대형 건설사 체면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해외 수주 실적 상위 10위권 내 들었던 SK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은 현재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주 실적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 대림산업은 22일 말레이시아서 1억3200만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통계 반영이 이뤄지면 다시 수주 10위권 내로 올라설 예정이다.

신규 계약 체결이 저조하면서 실적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실적 중 올해 신규 계약에 기인한 금액은 1억2351만 달러로 전체의 3.58%에 그쳤다.

한편,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 수주 실적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 및 아시아 건설시장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고, 최근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업스트림(upstream)에서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수직 계열화하는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기회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교통·상권 다 갖춘 대단지
비싼 분양가에도 관심 집중

주목! 이곳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최근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 시장만은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다. 특히 서울 도심권 분양 물량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 선보이는 역세권 대단지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22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평일 오전임에

총 18개동 1116가구 규모로
전용 84㎡ 7억8200만원부터
3호선 홍제역·초중교 인접

도 긴줄이 늘어서 있고 내부 유닛 앞에도 10~20분은 대기해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 39~114㎡ 총 1116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41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층수와 주택유형에 따라 7억8200만~8억9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 후불제의

22일 방문객들이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혜택도 주어진다. 59㎡의 경우 층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6억560만~7억720만 원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에 들어서고 대단지일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도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을 이용하면 업무시설이 몰려 있는 종로·광화문·시청 등 도심권까지 10분대, 강남권도 20분대면 도달 가능하다.

인근에는 인왕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인왕중학교와의 거리도 가깝다. 또한 주변에 이미 형성된 홍제역 인근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보거리에 인왕시장, 유진상가가 있어 편리한 생활도 가능하다. 한편 청약 일정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27일에는 1순위, 28일에는 2순위가 차례로 진행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달아오른 마곡… 기업 토지분양 99% 완료

LG·롯데 등 65개 기업 입주·착공
이화의료원·서울병원도 개원 앞둬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오름세

마곡지구의 기업 토지분양이 마무리돼 가면서 일대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2011년 10월 첫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래 총면적 54만3706㎡ 중 99.5%인 54만724㎡가 공급을 마쳤다.

올해 공고 예정인 2982㎡ 면적의 1개 필지를 끝으로 토지매각을 통한 산업시설 용지 분양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처럼 마곡지구의 산업시설 용지가 분양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 서부권 일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의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시설, 상가, 오피스텔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곡지구는 이미 LG, 코오롱, 롯데 등 65개의 기업은 입주를 마쳤거나 착공에 나섰다. 모든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마곡지구는 향후 150여 개 기업과 약 16만여 명의 근로자를 품게 된다.

실제로 마곡지구는 LG그룹만 하더라도 LG사이언스파크가 4월 입주해 현재 1만7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2020년까지 근무 인원은 2만2000여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형병원인 이화의료원 서울병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어 종사자 등을 수용할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이 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도 좋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등촌동 '대명투웨니퍼스트1차' 전용면적 29㎡는 지난해 10월 2억48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분양가(1억9900만 원) 대비 46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가양동에 위치한 '이스타빌2' 전용면적 30.6㎡도 같은 달 분양가(9083만 원)보다 약 5000만 원 상승한 1억4000만 원에 매매되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적지 않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지역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우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28-9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가양역 더스카이밸리 5차'가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전·후면의 공개공지와 2, 3층의 옥외 테라스를 배치했으며 단위 규모가 작은 소형 섹션오피스로 설계하는 등 상품성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시 마곡지구 C12-8, 12-16블록에 위치한 '퀸즈파크 13' 상가가 분양 중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2월 넷째 주 전국에 51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등 5개 단지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2개 단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3곳에서 진행된다. 이달 25일 경기 고양시 향동동 '고양향동A1(영구임대)'를 시작으로 27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센트럴푸르지오(AB16)', 28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지웰에스테이트' 등이 예정돼 있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8곳이다. 모두 25일에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경기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등이다.

28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평택시 합정동 '평택뉴비전엘크루' 단지가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2/25 (월)	발표	경기	고양시	향동동	고양향동A1(영구임대)
	계약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2/27)
		경기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2/26) ♣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2/27)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태왕아너스 (~2/27)
				신천동	동대구비스타동원 (~2/27)
2/26 (화)	접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1순위 (당해지역)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1순위 (당해지역)
2/27 (수)	접수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1순위 (당해지역)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1순위 (기타지역)
2/27 (수)	접수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1순위 (기타지역)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지웰시티푸르지오(2-C1) 1순위
					탕정지구지웰시티푸르지오(2-C2) 1순위
	발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센트럴푸르지오(AB16)
2/28 (목)	오픈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평택시	합정동	평택뉴비전엘크루
	접수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1순위 (기타지역)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2순위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2순위
	발표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지웰에스테이트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주째 하락

송파구 -0.22% 가장 많이 떨어져
진주아파트 재건축 영향 전세는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로 집계됐다. 작년 11월부터 줄곧 내림세다.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은 -0.14%로 전주(-0.09%)에 비해 낙폭을 다시 키웠다.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송파구가 -0.22%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강남 -0.13%, 강동 -0.10%, 동대문·양천 -0.09%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중랑구 0.08%, 중·도봉구 0.03%, 서대문구 0.01%는 소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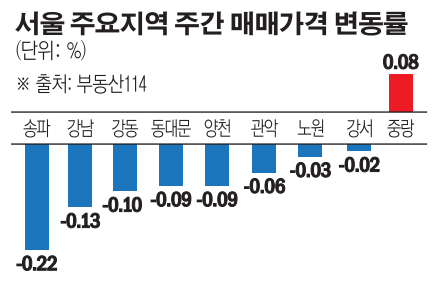
송파는 잠실동 일대 트리지움, 리센츠 등 대단지 아파트값이 중소형 면적 위주로 1000만~2500만 원씩 떨어졌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와도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남은 개포지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다. 특히, 착공 지연으로 4월부터 입주권 거래가 재개되는 개포주공1단지가 5000만~2억 원가량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강남권 자치구별 재건축 아파트 변동률 추이를 보면 서초구만 0.00%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0.23%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이어 강남구 -0.22%, 강동구 -0.06% 순으로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07%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2%, -0.09%로 약세를 보였다. 전셋값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0.08%), 중랑구(0.01%)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 출처: 부동산114



강북구가 -0.26%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중구 -0.23%, 성북구 -0.22%, 동대문구 -0.21% 순으로 하락했다.

번동 주공1단지가 500만 원,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가 1000만 원가량 떨어졌다. 중구 역시 전세 문의가 없는 가운데 신당동 남산타운이 500만 원 하락했다.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전세금이 1500만~2000만 원 내렸다.

반면 헬리오시티 입주 여파로 전세가격 약세가 두드러졌던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말(11월 30일, 0.05%)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미성·크로바에 이어 진주아파트 재건축 이주 일정이 잡히면서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전셋값이 1000만~2500만 원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지면서 급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 일부 실수요 매수세가 움직일 뿐 전반적인 거래 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삼성전자 'MS 특허권 세금' 부당"

법원 "한미조세협약 따라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세금 매길 수 없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로 인해 징수된 법인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기로 MS와 계약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MS에 특허 사용료를 주면서, 일부를 법인세로 떼어놓고 세무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

세무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 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법인세 과소 납부로 판단, 690억 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 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특허 사용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 사용료 소득 전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한 셈이다.

반면 세무당국은 구 법인세법을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삼성전자와 MS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원고 청구 취지에 따라 법인세 원천세 113억 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질 때 그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효진 기자 js62@

봄으로 물든 제주 24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일출봉 부근 유채 꽃밭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때 범죄,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대법 "2심 재판 다시 하라"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하사관·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소년법 규정이 군인사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1983년 1월 육군에 입대해 1983년 6월 단기복무 하사관을 거쳐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최 씨는 2015년 12월 원사로 명예전역한 후 퇴직급여와 명예전역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 8월 군당국이 과거 입대 전 최 씨의 폭력 전과를 이유로 임용무효 처분을 내리고, 2017년 6월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퇴직군인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유족연금 받으며 타인과 사실혼… 법원 "연금 환수"

주소 변경 때부터 혼인관계 인정 공무원연금법 따라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을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환수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모 씨로부터 월 80만~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간병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여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간병인이 환자와 여행을 간다거나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A 씨의 딸이 A 씨와 이 씨를 부모로 칭한 점, △공단의 혼인관계 유무 조사 당시 A 씨와 이 씨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을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 환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때를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일로 정하고 있다"며 "사실상혼인관계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주소 변경 시점을 혼인관계 시작일로 보고 연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7월께 A 씨가 이모 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그해 12월 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사실혼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 38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이 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시점을 환수 시점으로 삼았다. 그러자 A 씨는 "이 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공단이 혼인 시기를 단순히 추측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한슬 기자 charmy@

택시 깜깜이 채용 그만… 근로정보 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 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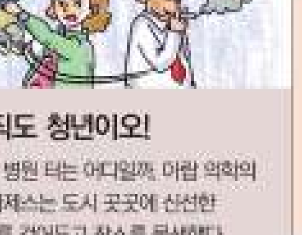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으로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 온라인 공개 의무화로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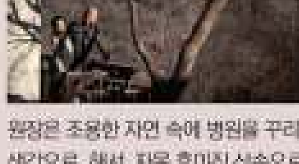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 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설경진 기자 skj78@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다시 시작하는 인턴, 일터로 갑시다
PART1. 시니어의 재취업 방법 – "취업이냐 창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PART2. 시니어 일자리 정책으로 본 '시니어 인턴 제도'
PART3. 인턴 도전을 위한 AtoZ – 이상보다 적성으로, 스펙 아닌 스토리로
PART4. 2018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기
PART5. 시니어 인턴십 기업 사례 – 'GS리테일', '편아이에프'
PART6. 인턴을 거쳐 정직원이 된 시니어를 만나다
PART7. 60세 이상의 인턴 일자리 '실버인재센터'가 책임진다
PART8. 베이비붐 세대 취업 어떻게 –중장년 성공 취업을 위한 5계명

웰에이징 끊기 힘든 담배, 작심삼일 벗어나는 방법은?
작심삼일. 1월을 벗어나 2019년이 익숙해질 즈음 떠오르는 단어다. 동해로 솟아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수년간 벗어나지 못한 일상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 늘 "이번이 마지막 한 대"라고 각오하지만 어느새 한 개비의 담배가 또 손에 들려 있다. 그리고 자책한다.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서홍관 교수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포기 않고 계속 도전하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난 아직도 청년이오!
이상적인 병원 터는 어디일까. 머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도시 곳곳에 신선한 고깃덩이를 걸어두고 장소를 물색했다. 가장 부패가 덜 된 고기가 걸린 곳에 병원을 세웠던 것. 한의사 김두범 원장은 조용한 자연 속에 병원을 꾸리는 게 옳다고 봤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해서, 자못 후미진 산속으로 귀촌했다. 굳이 외진 산골까지 찾아들 환자가 몇이나 될까마는, 그는 즐겁다. 자신의 지향과 실천에 만족하기에.

선라보가 만난 사람

믿고 기다릴 때, 아이는 결대로 자라난다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저자 이규천

뉴스Queen 내려놓고, 시니어와 동백꽃처럼 피다
유영미 SBS 아나운서

'믿음'과 '신뢰'의 3대째 배우 팔자
한복 입은 박준규 가족 나들이

타박타박 도보여행 알싸한 겨울 바다를 벗삼아 걷는 길 '외옹치 바다향기로'
겨울에는 왠지 속초에 가야 할 것 같다. 푸른 바다와 청초호, 아바이마을, 영금정에서 봤던 새해 일출, 이 맥락 부딪히가며 먹었던 물회의 추억이 겨울에 달아 있어서일까. 이번에도 속초 바닷길과 마을길, 시장길을 구석구석 누비는 재미에 빠져 남쪽 외옹치항에서 북쪽 장사항까지 걷고 말았다.

머니테크 공시가격 '폭탄'…'집 한 채' 은퇴자 날벼락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박탈 우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사부샤부로 색다르게 즐기는 설날 떡국

부치지 못한 편지
정일근 시인
바다에서 죽어가는 고래, 내 친구에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긴장 완화〉

한반도 해빙무드 타고 北-아세안 '新데탕트 시대'

동남아, 北·美-美·中 관계 핵심으로 부상

2년전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악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극적 개선
2차 회담장소로 베트남 선정되며
적대 관계서 '北의 롤모델'로 부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지 13일(현지시간)자로 2년을 맞았다. 여전히 김정남 살해를 실행했던 여성 2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당시 사건으로 악화했던 북한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관계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오전 많은 이용객이 오가는 말레이시아 쿠알루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격 직후 사망했다.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2명이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의 VX 신경가스액을 문질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관여했던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모두 해외로 도피해 북한 개입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졌다.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가 평양 주재 대사관 폐쇄 방침을 표명하고 자국민이 사건에 휘말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북한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이 양측 관계의 극적인 전환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분석했다.

아세안 각국이 북미 협상을 지켜보는 자세로 돌아서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삼갔다. 북한도 지난해 말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관계 복구에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게 된 것은 사실상 김정남 살해 사건 영향이 거의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2차 북미 회담을 모두 국제적인 대화 장소였던 스위스 제네바 등 대신 아세안 국가들이 유치하면서 글로벌 정치·외교 무대에서 이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제 아세안과 북한의 해빙 모드 속에 27~28일 2차 북미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베트남과 미국은 과거의 원한 관계를 청산한지 오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DoiMoi·쇄신)'는 미국이 북한에 권유하는 성장모델이기도 하다. 북한도 자국 대사관이 있는 전통적인 우방 베트남을 2차 회담 장소로 선호했다. 베트남은 회담 유치를 위해 미국, 북한은 물론 중국 등과도 긴밀히 협력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이지만 1986년 시작한 도이머이를 지속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동남아시아 최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베트남이 걸어온 것과 같은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하노이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동남아 후발주자였던 베트남은 특히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가파른 성장궤도에 올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08%에 달했다.

베트남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에 자국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외교 면에서 관계를 더욱 강화, 중국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후 장관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치앙마이/AP뉴시스

동남아 "세계의 공장, 여기 어때?" 무역갈등 지친 기업에 '脫중국' 유혹

삼성 스마트폰 절반 베트남 생산
태국, 부품사 2500곳 車허브로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주요 2개국(G2)의 무역 전쟁이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관세전쟁에 힘입어 성장 중인 국가들이 있다.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최근 앞으로 동남아가 중국 대신 '세계의 공장' 역할을 도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거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은 넓은 땅과 값싼 인건비에 매력을 느껴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기업들의 수출 제조를 담당하는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도움을 받아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에 타격을 입자 기업들이 동남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1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성장의 기회를 잡을 다음 주자는 바로 베트남"이라며 기업들을 적극 환영했다. 블룸버그는 푹 총리의 기업 친화적 정책 덕분에 베트남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1990년부터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제조해왔다. 무역 전쟁의 리스크가 커지자 기업들은 제조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을 피난처로 삼아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삼성 스마트폰 생산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계속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플의 에어팟을 생산하는 중국 음향기기 및 부품 생산업체 고어텍(Goertek)은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해 에어팟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LG그룹은 베트남 호찌민과 하이퐁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LG전자는 하이퐁 생산공장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5억 달러(약 1조 689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태국도 매서운 속도로 베트남의 뒤를 좇는 중이다. 태국은 동남아 2위 경제 대국이자 최대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허브다. 포브스는 현재 태국에만 2500개의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가 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미국은 과거 무역 갈등이 불거질 때 중국 내 생산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의 충격을 고려해왔다"며 "동남아의 급성장이 미국에 좋은 협상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거점 대체재로 동남아를 점찍어둔 가운데 탈중국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크로스파이어〉

누적 회원수 6억6000만명 '게임 한류' 견인

게임 쏙쏙 ⑥ 스마일게이트 Smilegate

2002. 6 ㈜스마일게이트 설립 ▶ 2007 크로스파이어 한국 서비스 시작 중국 · 일본 진출

세계 80여개국 서비스… 누적 매출 10조5600억

성공 선봉장 '크로스파이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마일게이트가 올해를 '글로벌 명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주력 라인업인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에픽세븐의 국내외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VR, 스토브 등 신사업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기업을 넘어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금의 스마일게이트를 있게 한 게임은 1인칭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다. 2007년 선보인 크로스파이어는 글로벌 출시 2년만에 글로벌 동시 접속자수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500만 명, 2015년에는 8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동시접속자 수를

중국시장 우선 출시 전략 적중
국내보다 해외서 인기몰이 가속
베트남 등 프로리그 활성화 발판
매년 두 자릿수 매출성장률 달성

기록했다.

크로스파이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출시 초반 글로벌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중국 시장에 우선 출시한 것이 적중했다.

크로스파이어는 출시 1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매출 액 10조5600억 원, 누적 회원 수 6억6000만 명을 달성하며 국산 게임의 글로벌 흥행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그룹차원의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육성사업을 통해 중국 외에도 브라질과 베트남에 프로 리그를 활성화하고 선수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연스럽게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이어지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난징에서 펼쳐진 크로스파이어 최대의 e스포츠 축제 'CFS 2018'에서는 역대 대회 처음으로 비중국팀이 결승에서 맞붙어 브라질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흥행에 힘입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3 모바일 카드 RPG 데빌메이커 출시 ◀ 2012 온라인 MMORPG DK온라인 출시 ◀ 2010 크로스파이어 WORLD E-SPORTS MASTERS 2010 정식종목 선정

FPS 넘어 MMORPG… 전 장르 아우르는 개발 名家

'원 히트 원더' 오명 탈출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흥행 이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배출하지 못해 '원 히트 원더'라는 오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스마일게이트는 모바일과 온라인 양쪽에서 히트작 2종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오명을 씻어냄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국내 게임 산업에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선보인 모바일 턴제 RPG 에픽세븐은 뛰어난 2D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연출, 자체개발 엔진을 통한 쾌적한 플레이 환경으로 출시됐다. 에픽세븐은 5일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양대 마켓 매출순위 5위에 올라선 데 이어 꾸준한 인기에 2위까지 오르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모바일 MMORPG 장르가 독점하다시피 하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최상위권까지 진입하며 게임

모바일 턴제 RPG '에픽세븐'
구글·애플 양대마켓 매출 5위
개발비 1000억 '로스트아크'
출시 첫날 25만명 접속 흥행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에픽세븐은 지난해 11월 9일 전 세계 140여개국에 '글로벌 원빌드'로 정식 출시했으며 대만과 싱가폴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순위 10권에 진입하며 성공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에픽세븐의 성공에 이어 지난해 11월 온라인 MMORPG '로스트아크'를 시장에 선보였다. 로스트아크는 스마일게이트가 약 1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블록버스터급 온라인 MMORPG다. 2014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단숨에 업계 최대 기대작으로 떠올랐으며 이후 3번의 비공개테스트와 2번의 FGT를 거쳐 마침내 세상에 출시됐다.

로스트아크는 출시 직후부터 혼자서 다수의 적을 쓸어버리는 박진감 넘치는 핵앤슬래시 방식의 전투 시스템과 항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대한 세계관, 유명 음악 디렉터 '브라이언 타일러'가 참여한 OST 등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다. 출시 첫날 동시 접속자 수는 25만 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일주일만에 3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PC방 인기순위에서도 전체 3위, RPG 장르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국내 PC 온라인 MMORPG장르의 부활을 알렸다.

로스트아크의 이런 성과는 핵앤슬래시와 MMORPG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떠오른 시장에서 이뤄낸 결과다. 특히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온라인 MMORPG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해온 스마일게이트의 안목이 돋보이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 스타트업 지원과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위한 'ORANGE FARM' 출범 ▶ 2017 스마일게이트-텐센트, 中 CF 프로리그(CFPL) 글로벌화 추진 ▶ 2018 모바일 턴제 RPG 에픽세븐 · PC MMORPG 로스트아크 론칭

지역 맞춤형 이벤트·서비스 강화… 글로벌 공략 가속도

'명문 기업' 도약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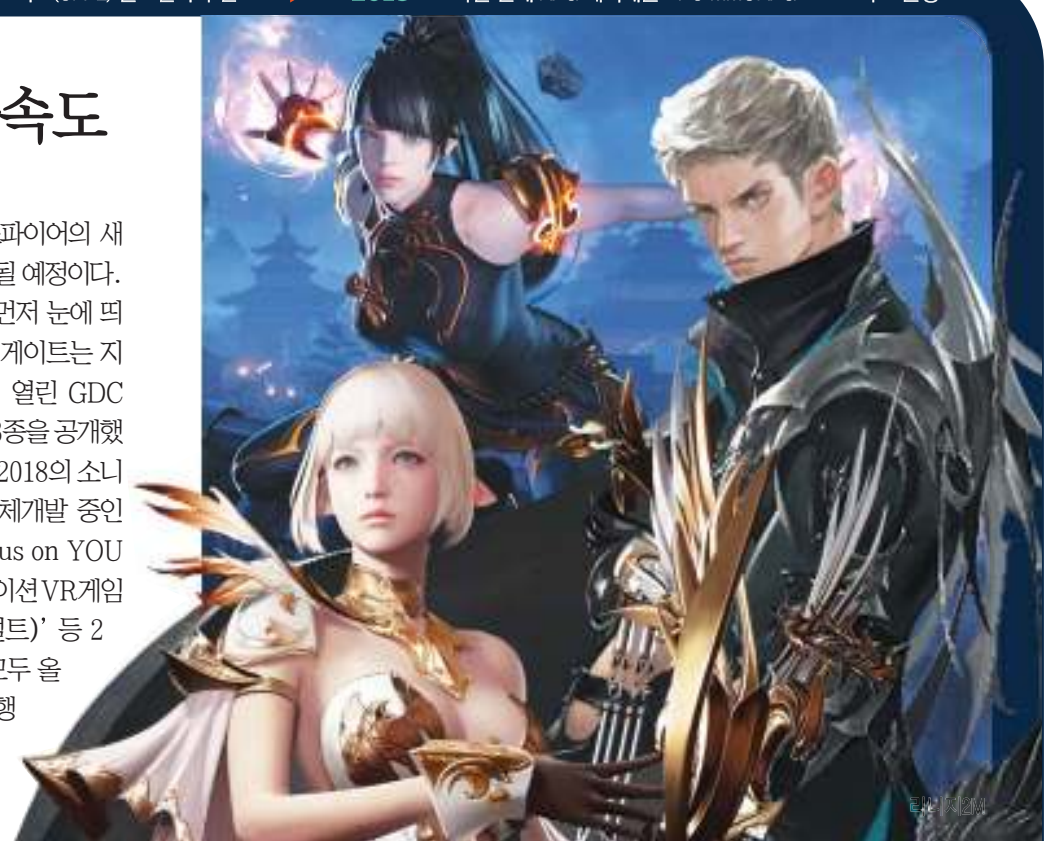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에픽세븐의 성공으로 인해 FPS와 MMORPG 장르를 아우르는 개발 명가로 거듭났다. 올해에는 핵심 라인업의 글로벌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명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로스트아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종합 포털 서비스 기업 'Mail.Ru'와 러시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의 경우에는 2015년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러시아 퍼블리싱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로스트아크' 러 기업과 협업
'크로스파이어' 고화질 리마스터
'에픽세븐' 대규모 업데이트
올해 출시 목표 VR게임 2종 개발

에픽세븐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 업데이트와 서비스 지역별 맞춤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글로벌 성과 향상에 집중한다. 크로스파이어 역시 2018 CFS에서 크로스파이어HD의 이벤트 매치를 진행하는 등 다시 한 번 중국 이용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크로스파이어HD는 크로스파이어를 고화질로 리마스터 한 작품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크로스파이어의 새로운 업데이트 형태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신사업 발굴 노력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VR사업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DC 행사에서 개발 중인 VR게임 3종을 공개했다. 이후 도쿄에서 열린 TGS 2018의 소니 VR게임 세션에도 참가해 자체개발 중인 연애 어드밴쳐 VR게임 'Focus on YOU (포커스온유)'와 전략시뮬레이션 VR게임 'Final Assault (파이널 어썰트)' 등 2종의 설명회를 가졌다. 2종 모두 올해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하나금융그룹

환전, 지갑이 대세다!

KEB하나은행
환전지갑

내 맘대로 사고팔고,
지갑처럼 보관하고,
똑똑한 환율 알림까지!
해외여행이 더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역시 남다른 환전서비스,
KEB하나은행입니다

터치 세 번이면 환전 끝! 환전지갑

- **STEP 1** : 통화/금액을 선택 후 **터치!**
- **STEP 2** : 환전신청 **터치!**
- **STEP 3** : 결제수단 선택 후 **터치!**

100% 환율(spread) 우대 효과 이벤트

- **기 간** : 2019.03.31 까지
- **내 용** : 환율우대 + 하나머니 적립 혜택 제공
- **대상통화** : USD, JPY, EUR

지금 바로
하나멤버스
APP에서
이용해보세요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 1인 1회에 한하여 혜택 제공 (환전금액 원화기준 1백만원 이내)
※ 하나머니 적립 시점에 하나멤버스 회원에 한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탈퇴회원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멤버스 APP을 참고하시거나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847 또는 1599-1111(0, 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1485호(2019.02.13) / CC브랜드 190213-0047

$ € ¥ 元
외환전문은행

'디지털 콕핏·차량용 반도체'로 전장사업 힘 싣는다

SAMSUNG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을 위해 전사조직에 2015년 12월부터 '전장사업팀'을 신설, 가동해 전장 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1월 삼성전자는 전장사업을 본격화하고 오디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전격 인수, 2017년 3월 인수를 완료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가자전쇼(CES 2019)에서 사용 편의성, 연결성, 안전성이 한층 높아진 차량용 '디지털 콕핏 2019'을 공개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하만과 공동 개발해 선보인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후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사례로 삼성전자의 IT 기술과 하만의 전장기술이 접목된 첫 결실이다. 디지털 콕핏은 사물인터넷(IoT)로 연결되는 사물들을 집안의 기기들과 모바일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확장시켰고, 자동차의 핵심 가치인 안전성을 위해서는 운전 환경 정보를 더 간결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차세대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동차용 프로세서 브랜드 '엑시노스 오토(Exynos Auto)'와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 오토(ISOCELL Auto)'를 출시하며 차량용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1년 모바일 SoC(System on Chip) 브랜드 '엑시노스', 2017년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각각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 첫 출시를 통해 사업 영역을 모바일뿐 아니라 자동차 시장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개한 이후 올해 1월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아우디에 2021년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in-vehicle infotainment)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V9'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차량용 '디지털 콕핏 2019'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세계 최고 '수소전기차' 퍼스트 무버 도약

HYUNDAI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기술을 앞세워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퍼스트 무버'로서 존재감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상징적인 모델 수소전기차 '넥쏘'는 단순하게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한다는 명제를 넘어 이 시대 현대차가 담을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총망라한 모델이다. 특히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내기 위해 다양한 안전 기술과 장비도 갖췄다.

넥쏘는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 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기준으로 실시한 측면 대차 충돌 테스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대형 픽업트럭이 측면부를 시속 50㎞로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승객 상해, 머리보호, 차량 변형에 있어 모두 'GOOD' 등급을 받은 것이다.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NCAP 테스트에서도 최고등급(별 다섯)을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신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중형 SUV △친환경차 △어린이 보호 부문에서 최우수 3관왕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넥쏘의 수소연료탱크 안전기술을 눈여겨 볼 만하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 그리고 UN의 수소연료탱크 안전인증 법규를 충족시켜 안전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수소전기차 넥쏘에는 친환경 기술을 넘어 이 시대 현대차가 보여줄 수 있는 첨단·안전 기술이 모두 담겨 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를 통해 미래차 시대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 현대차

기존 양산차 개발 충돌시험 항목은 물론 △수소 밸브 직접 충돌 △후진 시 수소연료탱크 하부 타격시험 △화재 안전성 평가 등 갖가지 악조건을 모두 견뎌냈다. 나아가 전방 충돌 성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한 전방 구조물 및 수소연료탱크 보호를 위한 차체 구조물 도입을 통해 테스트 기준 이상의 충돌안전성도 갖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실제 현대차 넥쏘 수소연료탱크는 약 4만5000회 충전 시험을 거쳤다. 하루 한 번 완충 기준 123년을 써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더 큰 행복'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선다

SK

SK그룹은 올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태원 SK 회장은 SK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능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더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 사회와 SK 구성원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4가지 행동 원칙으로 △회사의 제도 기준을 관리에서 행복으로 바꿀 것 △평가 요소 중 사회적 가치 비중을 50% 늘릴 것 △구성원의 개념을 확장할 것 △작은 실천 방법들을 만들어 나갈 것 등을 제안했다.

SK그룹은 행복 창출 방법론으로 사회적 가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글로벌성과 창출 등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통적 개념의 경제적 가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업이 '어떻게 더 많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결국 이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를 예로 들자면 반도체 기업이 IT 제품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마케팅 팀의 전략과 구매팀의 영업에도 변화가 생긴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전통적 개념의 경제 및 비즈니스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사진제공 SK그룹

최 회장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미래에는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한 실마리"라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는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측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K그룹은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5대 중점 육성 분야 집중 투자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5대 중점 육성 분야는 △반도체·소재 △에너지 신산업 △헬스케어 △차세대ICT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AI·전장·5G·로봇…미래 먹거리 선점 속도 낸다

LG

LG그룹이 올해 전장, 5G(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먹거리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더 낸다.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인공지능(AI), 로봇 등 성장사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사업에서는 2017년 인수를 마무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 선도기업 ZKW와 적극 협력한다. 가전,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에는 AI 기능을 확대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국내외 로봇 기업 투자 및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한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광저우에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 OLED 경쟁력 강화에 매진한다. 현재 10% 대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매출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LG화학은 기초석유 화학 분야의 고부가 가치 제품인 폴리올레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5G시장 선도에 나선다. 관련 분야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객이 실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영역에서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통한 정밀 측위 기반의 자율주행용 다이내믹맵을 선보인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LG전자 등과 함께 5G 기반 물류로봇 원격 제어, 공정관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 자동차 전장부품, 기판 소재 등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LG는 국내 최대 규모 융복합 연구단지인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해외 유수기업, 중소벤처 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전자, 화학 등 다양한 이종사업 간 융복합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LG는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전시회에서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올레드 플렉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여 만든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을 연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제공 LG

美·獨·日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Hanwha

한화그룹은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해 금융, 투자사업, 제조, 태양광, 항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Vin Group) 팜 느엇 브엉 회장을 만나 양사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정도로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항공기 엔진부품 신공장을 준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며 글로벌 항공엔진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화테크윈 역시 지난해 베트남 박닌성 꿰보공단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CCTV 카메라 및 영상저장장치 등 보안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태양광 사업 역시 한화그룹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작년 말 기준 총 8GW의 셀과 모듈 생산능력을 각각 보유해 셀 기준으로 세계 1위 사업자다. 기술력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1년 퀀텀기술로 다결정 셀 효율 세계 1위 기록을 보유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다결정 모듈 효율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태양광기업 한화큐셀의 연구개발 현장 모습. 사진제공 한화

한화큐셀은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태양광모듈 시장에서 작년 점유율 선두에 올랐다. 주요 태양광 선진 시장인 미국, 일본, 터키, 호주 등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점유율 1위 달성은 한화 태양광의 기술력과 품질력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다.

한화토탈은 올해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플랜트를 구축한다. 한화토탈은 공장 내 IT 고도화가 필요한 설비, 안전 환경, IT 인프라, 물류·운영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장 내 모든 상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는 '스피드', '스마트', '세이프' 공장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연매출 2兆 눈앞

SHINSEGAE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올해 백화점 업계에서 최단기간 연매출 2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남점은 2016년 8월 증축과 기존부 리뉴얼을 마치고 영업면적을 기존 1만6800여 평(약 5만5500㎡)에서 9400여 평(약 3만1000㎡) 더한 총 2만6200평(약 8만6500㎡)으로 늘려 서울지역 최대 면적의 백화점으로 재탄생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공세로 백화점의 성장이 쉽지 않은 요즘 리뉴얼 오픈 1년 만에 강남점은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점이 리뉴얼 오픈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간 전체 매출은 21.8% 신장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야심차게 선보인 4대 전문관의 경우 슈즈 41.8%, 컨템포러리 36.2%, 생활 49.1%, 아동 38.8% 신장하는 등 강남점 매출을 견인했다. 같은 기간 강남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수는 2500만 명을 웃돌아 20.2% 신장했고, 내점 고객수는 하루 평균 15만 명에 달했다. 또한 서울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해당 기간 1년간 강남점을 처음 이용한 신규고객은 전체 고객 수의 4분의 1 수준인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 성장세는 차별화된 상품 중심의 매장 구성이 주효했다. 강남점은 기존의 '브랜드 중심'에서 품목별로 모아놓는 '상품 중심'의 편집매장 형태로 확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및 센트럴시티 전경. 사진제공 신세계

바꿨다. 예전에는 고객이 냄비를 구매하려면 A, B, C, D 등 모든 매장을 일일이 둘러봐야 했지만 강남점에서는 모든 브랜드와 가격대의 냄비가 한곳에 진열돼 고객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고신장하며 매출 2조 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면세점이 오픈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1개월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외국인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신장했고 구매고객 수는 15.2% 증가했다. 또 면세점 오픈부터 최근(올해 2월 19일)까지 외국인 고객 매출 26.0%, 구매 고객수는 27.7% 증가하면서 백화점과 면세점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건설 기계 넘어 협동로봇 사업 박차

DOOSAN

두산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내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인 발전소 플랜트와 건설기계 등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사업영역을 넓혀감과 동시에,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제조업의 길을 열고 있다.

두산은 2017년 그룹 내에 '최고디지털혁신(CDO)'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 신설의 의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그룹 전반에 디지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CDO 조직은 그룹의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에 지원 부서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 확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그룹 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산만의 ICT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은 2017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기술로 손꼽히는 협동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양산을 시작했다. 2015년 두산로보틱스를 설립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개발자를 영입해 2년여간 연구개발을 거쳐 4개 모델의 협동로봇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기존 산업

지난해 6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오토매티카 전시회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여섯 대의 협동로봇을 활용해 스마트 오토모티브 공정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그룹

용 로봇과 달리 협동로봇은 펜스 없이도 안전하게 작업자 곁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자유롭게 설치해 작업자와 업무 분담을 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6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로봇·자동화 분야 전시회인 '오토매티카 2018'에 참가해 협동로봇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최대의 산업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보존그룹의 링호우(Linkhou)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36%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식품·물류 중심으로 글로벌 영토 확장

CJ

CJ그룹이 그룹 비전인 '월드베스트 CJ(2030년 3개 이상 사업에서 세계 1등)' 달성을 위해 식품과 물류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글로벌 '톱5'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M&A(인수합병)를 추진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의 선봉 역할을 수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은 중국 스피덱스, 말레이시아 센추리 로지스틱스, 인도 다슬, UAE 이브라콤, 베트남 제마텝을 연달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미국 DSC로지스틱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시아를 넘어 미주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월드베스트 CJ'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CJ제일제당 역시 글로벌 전략 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2020년까지 국내외에서 1조 9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이 중 1조 원을 해외 매출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 라비올리사와 베트남 민닷푸드 등을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미국 냉동식품 전문업체인 카이키와 독일 마인프로스트를 사들였다.

CJ그룹이 2017년부터 매진해온 사업구조 개편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앞으로 글로벌 영토 확

CJ 더 센터 전경 사진제공 CJ

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은 2017년 11월 CJ제일제당의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BIO, 생물자원, 식품, 소재 등 4개 사업부문을 BIO와 식품으로 통폐합했고, 12월에는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의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단독 자회사로 구조를 전환했다.

지난해 7월에는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 법인 'CJ ENM(Entertainment and Merchandising)'이 출범해 국내 최초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의 탄생을 알렸다. 이를 통해 CJ그룹은 2017년 당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27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재무안정성 지표인 에비타(EBITDA)는 약 3조 원을 달성했다.

배터리 소재 등 신성장 사업 강화에 45兆 투입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대 개혁과제' 실천과 100년 기업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신성장 부문을 신설하고, 그룹 2차전지 소재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맡도록 했다. 신성장부문장에는 전문인재 중용 경영철학에 따라 오규석 전 대림산업 사장을 영입했다.

포스코는 2023년까지 미래 신성장 사업에 10조 원, 에너지 인프라 등 그룹사 주요 역량 강화에 9조 원 등 총 4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현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각각 포스코ESM과 포스코켐텍에서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포스코켐텍이 그룹 내 에너지 소재 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포스코ESM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포스코켐텍은 양·음극재의 설비투자를 통해 2021년에는 국내 매출 1조4000억 원 이상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켐텍은 세종시에서 2차전지 음극재 1공장의 준공식과 함께 2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음극재 생산라인 확대에 착수했다. 2공장 건설이 모두 완료되면 연산 2만4000톤 규모의 1공장과 함께 연간 총 7만4000톤의 음극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는 30kw급 전기자동차 배터리 약 27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2017년 1월 중국 화유 코발트사와 맺은 전구체·양극재 합작 생산법인 설립 계약을 최종 승인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삼성SDI와 공동으로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칠레에 양극재 공장건설 계약을 체결,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3200톤 규모의 전기차용 고용량 양극재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된다. 포스코는 2차전지 분야를 203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20%, 매출액 17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켐텍 출하창고에서 음극재 최종 제품이 출하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기가지니'로 차별화…AI 생태계 주도

KT는 AI 플랫폼 '기가지니'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내 AI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다.

KT가 2017년 1월 선보인 기가지니는 대부분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TV와 셋톱박스에 음성인식 기반 AI 스피커를 접목한 다기능 제품이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터치형 서비스에서 음성 서비스로 넘어가는 변화의 흐름에서, KT는 기가지니를 누구나 쉽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기가지니는 지난달 기준 가입자 140만 명을 돌파해 서비스 가입자 수 기준 국내 1위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화면과의 연동이라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음성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다른 AI 스피커와는 달리 기가지니는 교육, 커머스 등 서비스 확장성이 넓다.

기가지니는 최초 출시한 TV 셋톱박스 형태의 성공에 이어 다양한 형태의 단말을 출시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17년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LTE망에 연동돼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AI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가지니 LTE'를 선보였다.

가정뿐 아니라 아파트, 호텔, 자동차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 국내 최초로 AI 호텔 서비스를 선보였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국내 최초로 KT의 AI 기술을 집약한 '기가지니 호텔' 단말을 적용했다.

기가지니는 화면과의 연동을 강점으로 키즈 콘텐츠, 교육 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KT는 기가지니에 지난해 5월 대교와 손잡고 국내 최초 AI 동화 서비스 '소리동화'를 출시하고, 영어 버전을 올해 1월 추가했다. '영어소리동화'는 영어책 문장을 읽으면 기가지니가 음향효과, 등장인물 대사 등을 들려주는 서비스다.

KT 기가지니는 TV 셋톱박스에 음성인식 기반 AI 스피커를 접목한 다기능 제품이다. 기가지니는 지난달 기준 가입자 140만 명을 돌파해 서비스 가입자 수 기준 국내 1위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제공 KT

해외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 공급 확대

LS그룹은 지난해 9월 그룹의 기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LS T-Fair'를 안양 LS타워에서 개최했다. T-Fair는 LS 창립 이후 그룹 차원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구자열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연구원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이룬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과제 발표와 시상식 등을 가졌다.

LS는 과거와는 달리 전년부터 사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미래 기술들로 전시장을 꽉 채워 변화를 시도했다.

LS그룹은 'R&D Speed-up'과 '디지털 전환'을 그룹의 연구개발 및 미래 준비 전략으로 삼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핵심 기자재 및 기술 공급과 해외 투자 확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LS의 주요 계열사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초전도케이블,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친환경적이고 전기를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그룹은 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기술 공급과 해외 투자 확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LS전선의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테스트 모습. 사진제공 LS

LS전선은 에너지와 정보 이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용도 자체가 더 다양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케이블을 개발했다.

LS산전은 전력과 자동화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융·복합 스마트 솔루션을 앞세워 소규모 지역에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Nikko동제련은 온산제련소에 생산 전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해 공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시아 취항지 학교 리모델링 지원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인 '아름다운 교실'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취항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항공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 '인재'가 '미래'라는 철학에 기반한다.

'아름다운교실'은 임직원이 직접 취항지를 방문해, 교육 기자재 등을 기부하고 현지 학생들을 직접 만나 직업 강연과 정서교류 활동을 하는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2년 중국 옌지 투먼시에서 첫 발을 내디딘 아름다운교실은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까지 확장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몽골 취항 시, 이곳에서도 아름다운교실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8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244번 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아름다운 교실' 개관식을 가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44번 학교' 내 직업교육 실습실의 바닥, 벽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 기부했다. 아울러 '타슈켄트 세종학당'이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사용할 각종 학습 자료의 화물 운송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중국 옌지(延吉) 투먼시(圖們市) '제 5중학교'를 처음으로 7년 만에 중국 내 30개 도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2월 현재까지 중국 학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11억 원 상당의 교육용 기자재를 지원했다. 특히 1회성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현지의 우수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해 항공사 견학과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아시나아항공은 2018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아름다운 교실'을 시작했다.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드는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은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비영리단체 굿피플과 함께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4기 73명의 학생들이 수료했고 최근 3년간 약 350여 명의 수료생들이 한국기업, 대형마트, 보건소, 초등학교 등 현지 기업 및 기관 입사에 성공했다.

고객과 함께…계열사 '독립경영' 돌입

효성의 올해 경영방침은 'VOC(Voice of Customer: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고객 지향 경영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올해 초 "모든 경영활동의 답은 고객에게 있다"며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비로소 고객과 함께 승리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계열사들은 올해부터 완전히 독립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고객중심 경영 정착을 위해 VOC 활동과 함께 시장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먼저 효성티앤씨는 주력 고객의 니즈를 찾아 품질을 높이고 타깃형 고객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에 집중한다. 특히 인도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인데, 하반기 완공되는 인도 스판덱스 공장을 선봉장으로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근 섬유 산업체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인도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고객과 전시회 동반 참가도 계획하고 있다. '고객의 고객'이 원하는 니즈까지 함께 파악하고 제품 공동 개발 등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베트남 호찌민 인근 동나이성 연짝공단에 위치한 효성 베트남 법인의 전경. 사진제공 효성

효성첨단소재는 아시아 로컬 고객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사와의 정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에 신규 폴리프로필렌(PP)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효성화학은 글로벌 PP 생산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 고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객별 특화 제품 판매도 확대한다.

효성중공업은 전력 산업부문에서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중전기기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송전 사업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적극 진출해 5년 내 글로벌 Top3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소재 등 고도화 비중 늘려 2025년 '글로벌 톱5'

LG화학

'글로벌 톱 10 화학사'인 LG화학이 사업구조 고도화와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미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13.5% 증가한 32조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톱5 화학회사'로 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소재부문은 고부가 제품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미래 유망 소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LG화학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지난 연말까지 1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화남 공장에 ABS 15만 톤을 증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여수 NCC(납사분해시설) 및 고부가 PO(폴리올레핀)의 각 80만 톤 증설을 위해 총 2조8000억 원을 투자했다.

전지부문은 가격, 성능, 안전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시장 선두 지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3세대 전기차(500㎞ 이상)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공략하고, 2020년까지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고성능 순수 전기차 기준 170만 대(10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전자소재부문은 OLED 소재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수처리사업 등 신사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수처리 사업은 중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재료부문은 전지 원재료인 양극재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성능 OLED 재료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생명과학부문은 '당뇨 및 연계질환'과 '면역·항암' 분야를 신약 타깃 질환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R&D 분야에 사상 최대인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LG화학은 매년 투자 규모를 10% 이상씩 늘려나갈 예정이다.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사진제공 LG화학

'올레핀' 신사업 진출…포트폴리오 다각화

GS칼텍스

GS칼텍스는 균형 잡힌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등 기존 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원가절감 및 수익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이나 원료, 고객 등을 기반으로 유가 등 외부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미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장기적 성장전략 아래 GS칼텍스는 기존에 축적된 기술 및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올레핀 사업에도 진출한다. 전남 여수 제2공장 인근 약 43만㎡ 부지에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연간 에틸렌 70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MFC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설계작업 진행 중으로 연내 착공 예정이다.

MFC시설은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유분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로 나프타를 원료로 투입하는 NCC 시설과는 달리 나프타는 물론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LPG, 부생가스 등 다양한 유분을 원료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칼텍스는 성장성과 사업 확장성이 높은 올레핀 사업 진출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정유와 방향족 사업 위주인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등 미래 지속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 사진제공 GS칼텍스

회사는 MFC시설과 기존 생산설비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석유화학사 대비 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석유화학 제품군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은 물론 다양한 고부가가치 다운스트림 제품으로의 진출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잔사유 투입 비중 높여 원가경쟁력 강화

Hyundai Oilbank

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사업 강화를 통해 미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는 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자회사인 현대케미칼과 현대코스모를 통해 파라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방향족 사업만 영위했던 현대오일뱅크가 올레핀 분야에 진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장 설계를 위해 에틸렌 열분해 공정 특허사를 선정한 상태다. 특허설계를 최단기간 내 마쳐 2021년 말 예정된 상업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특허 설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존 정유공장과의 연계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다. 현대오일뱅크는 납사 대신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취급되던 잔사유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렴한 원료를 사용, 생산 원가는 낮추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정유공장 내에 SDA(Solvent De-Asphalting) 공정을 가동하고 있다. SDA는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잔사유에서 아스팔텐 성분을 분리해 DAO(De-Asphalted Oil)를 생산하는데, DAO는 납사보다 20%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국내 기업 중 DAO를 에틸렌 생산 원료로 투입하는 것은 현대오일뱅크가 최초다. DAO를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정유사보다 고도화 설비를 잘 갖췄기 때문이다.

현대케미칼 항공 사진. 사진제공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장기적으로 DAO 등 정유공장 부산물 투입비중을 최대 80% 이상 늘릴 계획이다. 비슷한 생산능력을 가진 NCC설비와 비교해 수익성 개선 효과가 연간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장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경쟁력"이라며 "HPC공장은 동북 아시아에 소재하는 110여 개의 올레핀 제조 공장 중 수위권의 원가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兆 통 큰 투자로 '종합에너지기업' 점프

S-OIL

S-OIL은 석유화학 분야에 1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S-OIL은 지난해 11월 5조 원을 투자해 건설한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 RUC & ODC(잔사유 고도화와 올레핀 다운스트림)의 상업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150만 톤 규모의 스팀 크레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짓기 위해 또다시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UC & ODC 프로젝트는 부가가치가 낮은 잔사유를 원료로 프로필렌, 휘발유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시설과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프로필렌(PP), 산화프로필렌(PO)을 생산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S-OIL은 수익창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통적 중질유 분해시설보다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프로필렌 유분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 건설을 추진했다"며 "최신 중질유 분해시설의 가동으로 더욱 우수한 수익성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도 구축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 윤활기유 등 비정유 부문의 비중이 현재 14%에서 19%로 늘어나고, 원유 가격보다 저렴한 중질유 비중은 12%에서 4%로 대폭 줄어든다.

S-OIL 아로마틱 콤플렉스 전경. 사진제공 S-OIL

타당성 검토를 수행 중인 스팀 크래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를 원료로 투입, 에틸렌 및 기타 석유화학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다. 원료 조달과 원가 경쟁력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추진,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다.

S-OIL은 "프로젝트 완공 이후 셰일오일, 전기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종합에너지화학기업을 목표로 하는 비전2025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 선대응 '배터리 생산설비' 증설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확장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역량을 확장 중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수주 물량을 늘리고, 또 이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글로벌 증설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 서산 제2 배터리 공장에 7호 설비 증설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가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은 총 4.7GWh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서산 공장 신규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에 달하거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기준 60㎞ 이상 달릴 수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3세대 배터리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며 세계적 기술 수준에 올라섰음을 증명하게 됐다. 제품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 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시장에서의 강력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국, 유럽,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생산설비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중이다. 모든 생산라인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연간 7.5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배터리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외 배터리 생산설비 신규 증설은 모두 이미 수주가 이루어진 건들에 대한 증설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확실한 투자 사업"이라며 "누적 수주 잔고도 2016년 말 30GWh에서 2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제품은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지속적으로 추가 수주해 온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집중 투자로 급성장 중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맙습니다,
이웃님!

층간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를 항상 이뻐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더 주의시킬게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윗집으로 올라간 이유가 궁금하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캠페인 [층간소음]편 영상보기

"한국 의료기술, 日·싱가포르보다 신뢰 높아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부평힘찬병원 서희원 씨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국립의대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
"건강 되찾고 떠나는 해외 환자 보며 보람"…러 환자가 85%

"의료 코디네이터란 제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24일 부평힘찬병원에서 만난 서희원(43·아브라크마노바 스베틀라나)의료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2000년 한국인 사업가와 결혼한 후 한국으로 온 키르기스스탄 출신 서 씨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한국에 오기 전 키르기스스탄 국립의과대학를 졸업한 그는 인턴과정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산부인과 의사였다. 한국에서 의사를 할 수 없었기에 대체 직업을 찾은 것이 의료 코디네이터였다. 서 씨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간병인 교육도 받았다. 이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인하대병원 등에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한 후 2016년 10월 부평힘찬병원에 스카우트됐다.

이처럼 많은 경험과 그만의 의학적 지식은 현장에서 다른 의료 코디네이터들과의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만큼 통역 역할에서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진료 내용 및 수술 결과 등에 대한 깊이있는 설명이 가능해서다.

서 씨는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코디네이터들 대부분 의학적 지식이 없어 간혹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통역하는 실수도 일어난다"며 "과거에 했던 의대 공부가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덕분에 입소문을 듣고 그를 찾는 해외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는 "부평힘찬병원에서만 지금까지 300여 명의 환자를 유치했다"며 "러시아 환자가 85%이며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에 이어 한국과 2~3시간 거리인 극동러시아 지역(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현지 의료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서 씨는 "중앙아시아·극동러시아 지역의 의료기기와 의사들의 기술 등 모든 의료환경이 한국의 20~30년 전 모습"이라며 "2015년 전까지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유럽을 찾았지만 이제는 일본, 싱가포르보다도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평힘찬병원 의료 코디네이터 서희원(왼쪽) 씨가 병실에서 해외의료 환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제공 부평힘찬병원

한국을 찾는 해외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 코디네이터로 지내온 지 10여 년이 된 서 씨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환자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말한다. 서 씨는 "걸을 수 없거나 앉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고국에 돌아가서도 달라진 생활들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들을 위해 러시아와 한국의 의료를 비교하는 책 집필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해외 의료 환자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이희범 前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이희범(70)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26일 제3대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이 이사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해 1972년 제12회 행정고시를 수석 합격했다. 제8대 산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LG상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퇴계학진흥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LG 상사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임준택 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

임준택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준택 당선자는 3월말 취임예정이며 임기는 4년이다.

임준택 당선자는 1957년생으로 대형선망수협조합장 출신이다. 현재 대진수산, 미광냉동, 미광수산 회장이다. 2014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2018년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최태원 회장 등 재계 인사 '보아오 포럼' 참석

이재용 부회장 명단서 빠져…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미정

내달 26일부터 나흘간 열려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 권오현〈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재계 인사들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말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 초청자 명단에 각국 정부와 재계, 학계, 언론계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럼 이사인 권오현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등 3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계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포럼 이사장에 선임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한다.

작년 4월까지 포럼 이사직을 맡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초청 명단에서 빠졌지만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면서 인사차 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 참석했던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아직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보아오 포럼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에는 류쿤 중국 재정부장,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등 각국 유력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는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간 '공유된 미래, 일치된 행동, 공동의 발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풍국주정 2대 주주 박순애 씨, 연예인 주식부호 5위

탤런트 출신으로 이한용 대표 부인…지분가치 340억

자회사 '수소 제조' 이슈 영향

탤런트 출신 박순애〈사진〉 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풍국주정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연예인 주식부호 5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2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박 씨의 보유주식(지분율 13.29%)의 지분가치는 약 340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321억4000만 원)보다 19억3000만 원(6.0%) 증가한 금액이다.

박 씨는 풍국주정의 최대주주인 이한용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1986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조선왕조500년 인현황후', '야망' 등에 출연했으나 1994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풍국주정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보유 지분가치도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정 제조업체인 풍국주정은 수소 제조업체 에스디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주가는 작년 11월 9000원 안팎이었으나 12월부터 급등해 지난달 17일 장중 최고 2만8650원으로 치솟았다. 22일 종가(2만350원) 기준 연초 대비 5.99% 올랐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지분 가치를 풍국주정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작년 11월 30일(153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기간 박 씨의 연예인 주식부호 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게시판

김희철 신재생에너지협회장 취임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가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제54차 이사회 및 2019년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협회장은 전임 협회장인 남성우 전 한화큐셀 대표이사에 이어, 향후 3년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언론 활동을 비롯한 각종 대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원시설협회장에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

롯데월드는 박동기 대표가 21일 열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2월 25일까지 3년이다. 종합유원시설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국내 유원시설 120곳이 회원으로 있다.

이홍구 인프라웨어 대표, SW협회장에

한국SW산업협회가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제31회 정기총회 및 제16·17대 협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이홍구 신임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다. 이 신임회장은 한국HP 부사장, 한글과컴퓨터 부회장, 투비소프트 대표 등을 거쳐 2018년 7월, 인프라웨어로 옮겼다.

두산인프라코어 드림스쿨 발대식

두산인프라코어는 23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드림스쿨'의 6기 발대식〈사진〉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스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청소년 꿈 찾기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7년간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320명과 청소년 400여 명이 멘토와 멘티로 참가했다. 이번에 발대식을 가진 드림스쿨 6기는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 20명과 중학교 2학년 학생 22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꿈 찾기 활동을 펼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부음 배연신굿·대동굿 보유자… '큰무당' 김금화 씨

큰무당 김금화 씨가 23일 오전 5시 57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유자인 고인은 1931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12세 때 무병(巫病)을 앓다가 17세에 외할머니인 만신(萬神·여자 무당을 이르는 말) 김천일 씨에게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남한 그는 무속인 방수덕 씨와 인천과 경기도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65년 서울로 활동지를 옮겼다. 그는 1972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해 '해주장군굿놀이'로 개인연기상을 받으며 민속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어장의 풍어(豊魚)를 기원하는 '서해안 풍어제'로 유명했다.

2014년에는 고인의 무당으로서의 삶을 담은 영화 '만신'이 개봉되며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박찬경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토론토 릴 아시안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유족으로는 아들 조황훈(자영업) 씨가 있다. 조카 김혜경 씨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이수자다. 빈소는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40분, 장지는 인천 부평승화원이다. 김정웅 기자 cogito@

▲**도기흥** 씨 별세, **도세민**(씨지테일 대표)·**세강**(LG CNS 책임)·**훈**(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 부장) 씨 부친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3010-2236.

▲**송종욱**(전 대한무공수훈자회 대전시지부장) 씨 별세, **송완순**(전 농심 부장)·**연순**(충청뉴스 편집국장)·**창순**(KEB하나은행 차장) 씨 부친상=24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구 중앙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장지 국립 대전현충원, 042-628-4440

▲**박성대** 씨 별세, **박해훈**·**해창**(㈜티알티 대표이사)·**해진**(우상건설㈜ 대표이사, 국민대 총동문회장)·**해영**(프라이빗 코리아 대표) 씨 부친상 =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1

▲**이순남** 씨 별세, **고재연**(자영업)·**계연**(서울경제 편집부 차장)·**교연**(양양군청)·**태연**(희성전자 베트남법인장)·**기연**(산림청 고위공무원)·**봉연**(성산성당 주임신부)·**정연**(학원) 씨 모친상 = 24일, 양양장례문화원 특1호실, 장례미사(양양성당) 26일 오전 10시, 010-3380-1986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성섭

◆**금융위원회** ◇승진 △고위공무원 이윤수 ◇파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이윤수

임병화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혁신 경쟁의 새 화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당장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승객석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다. 비행기나 기차 등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모니터를 돌돌 말아 휴대할 수도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폰(foldable phone)인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였다. 4.6인치 크기의 스마트 폰을 펼치면 7.3인치 디스플레이가 되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구부러지는 수준을 넘어 완벽하게 접었다 펴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모드와 태블릿 모드의 호환이 자연스러웠다.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긴 하지만 본격적인 폴더블폰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사실, 폴더블폰은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업체들도 일찍이 관심을 갖고 개발 중이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로욜(Royole)은 이미 작년에 '플렉스파이'라는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모토로라, 소니, 오포, LG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폴더블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도 관련 특허를 공개하면서 폴더블폰 제작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폴더블폰 경쟁은 기존 스마트폰의 근본적 형태를 바꾸는 폼 팩터(form factor) 체인저에 대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 스마트폰 형태는 바(bar)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성능과 두께, 그리고 화면 비율에 대한 경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접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경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삼성과 모토로라는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In-folding) 방식'을, 로욜과 화웨이는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Out-folding) 방식'을 도입하였고 샤오미는 바깥으로 두 번 접는 '더블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애플은 특허를 통해 안쪽과 바깥쪽으로 세 번 접을 수 있는 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결국 폴더블폰도 소비자가 선택한 하나의 형태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막 그 경쟁이 시작되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폴더블폰이 올해 300만 대에서 내년에는 1000만 대, 2022년에는 5000만 대 판매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수치는 폴더블폰이 얼마나 합리적 가격에 태블릿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접는 디스플레이, 보다 넓게는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의 상용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LG전자는 'CES 2019'에서 세계 최초의 롤러블(rollable)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를 공개하였다. 4mm가 안 되는 두께의 디스플레이를 단순히 구부러지는 수준을 넘어 돌돌 말아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용화를 예고했다.

이러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 것이다. 당장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승객석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LG디스플레이가 CES에서 공개하기도 하였다. 비행기나 기차 등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모니터를 돌돌 말아 휴대할 수도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 경쟁이 산업계에서 주된 관심을 받았다면 올해는 여기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더한 혁신 경쟁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접목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줘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폴더블폰의 경우, 스마트폰 모드와 태블릿 모드 사이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핵심인데 반도체 성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호실적으로 SK그룹 자산이 무려 23조 원 넘게 증가하였고, 올해 말에는 국내 2위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폴더블폰과 롤러블 TV 등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인한 혁신 경쟁과 그로 인한 산업계 변화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마이클 브린 '한국, 한국인'

이 땅에서 36년…애정·염려 담긴 한국 탐구서

타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일은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을 잘 살아내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브린의 '한국, 한국인'은 36년째 이 땅에 사는 전직 기자이자 홍보회사 대표의 타자 눈으로 본 책으로, 애정과 염려가 담긴 한국 탐구서다. 타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그것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고쳐 나간다면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국민 정서는 폭민정치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 가둬 놓아야 할 짐승이다"라는 그의 고언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당분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항과 국민 정서와의 로맨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려면 새로운 세대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지적은 옳다. 칙칙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미래 전망은 다소 의외다. 근대 한국의 운명을 40년 주기로 설명한다. 1905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40년은 성서의 유대민족이 광야를 방황했던 시기다. 이후 해방 또는 1988년까지를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기로, 향후 40년을 남한 경제가 선진 경제로 발전하고 민주주의 역량이 강화되는 시기다. 그 종결 시점을 2028년으로 잡지만 과연 그런 낙관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국인에게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새로운 우월적 지위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겸손하던 사람이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바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풍토와 문화가 이를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다소 논쟁적인 이야기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 특히 자국 정부에 현기증이 나는 사태를 보고해야 하는 외교관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박근혜가 실제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어떤가.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한다. "지극히 간단한 질문 같지만 그 답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아리송하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에 기초했더라면 조사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책이 가진 가치는 '우리'라는 전체에 함몰될 수도 있는 생각의 틀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타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각성을 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한국인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서도 그는 타자의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한국인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한국의 부상은 또한 미국의 성공 스토리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다소 언짢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한국의 성장에 미국이 시동을 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 안보 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자국의 부와 자유를 통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를 보여주었다."

기자 시절 그는 북한 담당이었다. 북한에 대한 그의 이해는 깊은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도 상기시켜 준다. "북측은 최소한 네 번에 걸쳐 남한의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한국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특성을 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며 그들에게는 어떤 의무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우리와 나를 이해하는 데 타자의 시선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덜레스 명언

"한 사회의 경제를 인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력과 금융 수단이다."

오늘날에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신자유주의적 조직이 그런 미국의 '확장된 팔' 역할을 한다. 반공주의자인 그는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롤백정책(roll back policy)과 뉴룩정책(new look policy)을 주장해 국지적 무력 사용의 가능성도 시사한 강경책을 취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덜레스국제공항은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88~1959.

☆ 고사성어 /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유자(有子)가 한 말에서 유래했다. "군자는 기초를 다지는 데 힘쓴다. 기초가 제대로 서면 나아갈 길이 절로 생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 기본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질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아와서 점검해야 할 바탕이다.

☆ 시사상식 / SOC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생산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 우리말 유래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조건이면 품질 좋고, 쓸모 있는 것을 고른다는 말. 다홍치마는 새색시의 예복. 이왕에 살 바에는 다목적, 실용적인 것이 낫다는 데서 온 말이다.

☆ 유머 / 청소 아줌마 항변

의사가 한마디했다. "진료 대기실 의자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더군요."

청소부 아줌마의 항변. "환자가 와 주지 않는데 난들 어쩌겠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곽진산 금융부/jinsan@

행안부 감독 무풍지대, 새마을금고

상대방의 주장을 뭉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주장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누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면, 반대 측에서 "프랜차이즈는 없어선 안 된다"라고 받아치는 식이다.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모두를 부정하는 식이다.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은 그 존재를 없애버리려는 파괴자 혹은 도살자가 된다. 이런 식의 반론은 해결 방안을 요원하게 한다. 원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는 "그렇다고 (새마을금고를) 없앨 순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또 "그만큼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했다. 선한 의도가 있기에, 그들의 비위도 삼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고와 중앙회를 없애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제보자들은 새마을금고를 아꼈다. 선한 의도는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 지적하려는 내부의 목소리도 충분히 조직 차원에서의 선한 의도라 볼 수 있다.

행안부는 내부의 지적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행안부는 직접 감사를 나가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감독권을 쥐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대면서, 직접 감사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리고 모든 감사를 중앙회에 일임했다. 그런데 그 없는 인력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동남아 해외 출장엔 따라갔다. 이쯤 되면 사람이 모자란 건지, 넘치는 건지도 의문스럽다.

슬프게도 새마을금고의 내부 제보자들이 기대는 곳은 행안부다. 행안부가 아니면 새마을금고는 달라질 수 없다는 절박한 기대 탓이다. 새마을금고가 필요한 만큼이나 필요한 기대다. 그렇다고 그들이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는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진의는 단지 무게만 버티라는 게 아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행안부는 그만한 책임을 가졌는지 되묻고 싶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 정치경제부 (02)799-2663 | 산업부 (02)799-2648
편집부 (02)799-2621 | 사회경제부 (02)799-2612 |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 국제경제부 (02)799-6741 | 중기IT부 (02)799-2646
사진팀 (02)799-2697 | 금융부 (02)799-2665 | 자본시장부 (02)799-2647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4차 산업혁명과 음식배달 서비스

데스크칼럼

이 효 영
부국장 겸 유통바이오부장

영화 '극한직업' 속 치킨집 '수원 왕갈비통닭'은 대박 맛집으로 성공했고 실제로 영화는 누적 관객 수 15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한국 자영업자들은 현실에서 여전히 문 열고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을 보면 처음으로 24만 개를 넘어선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 절반이 치킨 등 외식업이었다. 외식업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평균 사업기간도 짧았다(4년 7개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작년에 가맹점수가 늘어난 점이 의아할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영업 말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니 일단 창업은 하는데 결국 폐업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얘기다.

치킨집을 필두로 한 한국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대표 영업방식 중 하나가 배달이다. 아파트 같은 집단주거 지역에 모여 살고 인건비가 싼 편이었던 한국에서 치킨점이나 중화요리점의 음식 배달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오래된 서비스다. 직접 고용한 배달 인력을 쓰거나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다가 최근엔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체 배달인력을 없애는 대신 배달 전문서비스(배달 앱)를 이용한다.

그런데 배달 앱의 등장은 식당 자영업자들을 또다른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몇 년 전 배달 앱 등장 초기만 해도 식당 자영업자들은 이를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처음 같지 않다. 식당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디지털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냐 못하냐, 광고비를 더 내고 상단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로 결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또, 예전엔 동네 식당 위주로 이뤄지던 음식 배달이 배달 앱 등장 이후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빕스 등 외식 대기업들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면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어서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 몇 년 새 핫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매끼니 요리할 시간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금융 기업인 UBS는 작년 7월 '주방이 사라진다?(Is the Kitchen Dead?)'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더 이상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시대가 아니라 만들어진 음식을 시켜먹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이 온다고 분석했다.

실제 글로벌 IT기업들이 배달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꼽으며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가 '우버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1위 업체를 바짝 뒤쫓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아마존 레스토랑이라는 음식배달 사업을 시작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차량공유 업체 그랩이 '그랩프레시'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IT공룡 알리바바가 '어러머', 텐센트가 '메이퇀뎬핑'이라는 배달 앱으로 경쟁하고 있다. 최대 5조 원로 추산되는 국내 배달 앱 시장도 쿠팡이 식음료 주문 서비스 '쿠팡이츠'로 올 상반기 중에 가세한다.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의 급팽창은 앞으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업계의 갈등처럼 식당 자영업자(외식업)와 배달앱 업계의 극한 대립으로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오프라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인 배달앱으로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이미 수수료, 광고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호시탐탐 이 시장을 노리는 국내 IT기업은 물론 머지않아 우버나 그랩 등까지 상륙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기술 혁명으로) 많은 사람이 19세기의 마차몰이꾼이 아닌 말의 운명을 맞을 수 있다. 마차몰이꾼은 택시 기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말은 점점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에는 완전히 퇴출됐다"고 썼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의 발전은 미래 사회에 일자리, 아니 우리 종(호모 사피엔스)의 정체성까지 바꿀지 모른다고 하라리는 경고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산업 간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컨센서스 마련, 고용방식의 변화,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등의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hylee@

사설

정년연장 논의 앞서 노동개혁 먼저 돼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종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도록 판결했다. 지난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이래 30년 만에 바뀐 판례다.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기대수명과 고령사회 진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 기준을 새로 세웠다는 점에서 합당하다.

보험료 지급에 대한 판결이지만, 앞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다. '가동연한 65세'는 법정정년 연장부터 시작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경로우대 등 각종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연쇄적으로 촉발시킬 게 분명하다. 고용과 노동, 연금과 노인복지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련 제도의 손질도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보험 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손해배상액이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등의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후폭풍은 기업의 법정정년 연장을 위한 노동계 요구가 더욱 거세게 표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년연장이 다시 사회적 쟁점화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연금수령 연령 조정에도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정년연장이나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은 어느 것 하나 단기간 내에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다. 경제주체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년연장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와 직결된다.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이 많아진다. 경쟁력은 떨어지고 신규 채용 기피로 일자리가 쪼그라들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 확대가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청년계층과 50~60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노동 가동연한이 60세로 늘어난 건 1989년이었지만, 3년 전인 2016년에야 법정정년 60세가 의무화됐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기업이 정년연장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연공서열 호봉제 등 획일적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정리해고의 기업 자율성이 배제된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탓이 크다.

앞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되지 않고는 전혀 현실성을 갖기 어렵고, 일자리 사정만 더욱 악화하면서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배준호의 세계는 왜?

뉴욕시 뒤통수 친 아마존의 '오만'

국제경제부 차장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이 최근 뉴욕시에 제2본사를 세우려던 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뉴욕 철수에서 아마존의 '오만방자'함이 느껴진다면 무리일까.

아마존의 제2본사 철수에 대한 격렬한 논란은 주로 뉴욕시에 맞춰졌다. 제2본사 유치를 추진했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소수 정치인들이 공동체보다는 자신들의 편협한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료 상승, 세금 특혜, 아마존의 무노조 정책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진영은 철회 결정에 환호했다.

아마존이 향후 10년간 25억 달러(약 2조8075억 원)를 들여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이를 차버린 뉴욕시가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뉴욕이 아마존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뉴욕의 뒤통수를 친 것처럼 보인다. 이만한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데 반대 목소리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반대 진영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존은 별다른 해명이나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하루아침에 손을 털고 나가버렸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뉴욕에 갈등과 혼란만을 조성한 채 자기만 쏙 빠진 셈이다.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7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단순히 일부 사람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마존은 떠났다"며 "근본적으로 이는 기업 권력을 남용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아마존의 오만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심지어 아마존은 스스로도 뉴욕에서 제2본사가 들어서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70%에 이른다고 밝혔음에도 이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마치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사실 아마존은 제2본사를 결정하는 과정도 오디션처럼 진행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아마존이 제2본사 유치에 매달리는 미국 지방정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도시들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뽑아낸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제2본사 공모에는 무려 238개 도시가 응모했다. 그만큼 아마존은 향후 투자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쏠쏠한 정보들을 공짜로 얻어낸 셈이다.

이는 구글과 애플 등 다른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아마존처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조용하게 처리한 것과 대조된다. 구글은 최근 미국 14개 주에 걸쳐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확장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애플도 2023년까지 미국에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마존과 같은 호들갑은 없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아마존은 미인대회를 열고 있다"며 "이는 한 명의 승자와 여러 명의 패자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baejh94@

알쏭語 달쏭思

반추(反芻)

매일같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진즉에 열렸어야 할 회담이 이제야 열리고, 진즉에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들을 이제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1945년 광복 이후, 이념이나 체제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남과 북이 그처럼 날을 세우며 적으로 갈라서야 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고, 70년 이상을 오가지도 못한 채 피눈물로 서로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이처럼 조바심을 내며 지켜봐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반추해 봐야 한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일제가 나라를 강탈해 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여 우리 민족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데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이념과 체제 논리에 의해 민족이라는 가치가 매몰되어 버렸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도 '통일'을 민족의 절대적 과제로 여기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무방한 선택 사항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도 남과 북이 더 멀어지는 이유로 작용했음을 반추해 봐야 할 것이다.

반추는 '反芻'라고 쓰며 각 글자는 '되돌릴 반', '꼴 추'라고 훈독한다. 글자에 따라 직역하자면 '꼴을 되돌린다'는 뜻인데 '꼴'은 말이나 소 등에게 먹이는 풀을 이르는 말이다. 소, 기린, 사슴, 염소 등은 위가 4개로서 먹었던 꼴을 되새겨 제2, 제3, 제4의 위를 거치게 함으로써 소화 흡수하는 동물이다. 이런 소화 작용 즉 되새김질을 반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사태의 의미를 곱씹어 되새기며 음미한다는 뜻도 갖게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려 하는 지금, 우리는 남북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반추해보며 다시금 통일을 민족의 절대적 과제로 인식하려는 마음을 다져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1919년 3월 1일
200만 국민이 참여했던 3.1 만세운동

세상을 바꾼 작은 힘

열여섯 어린 소녀의 작은 외침이, 3.1 만세운동의 거대한 함성으로
상하이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꿈이, 독립운동의 거대한 교두보로
그 작은 힘들이 모여 오늘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KB금융그룹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KB금융그룹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KB 금융그룹